

www.boriSudongSan.or.kr

좋은 인연으로 동산 가득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초록연꽃

불기 2560년 / 2016(통권 17호)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2016년 통권17호 초록연꽃

1. 햇살마루 ... 봄길(정호승)	02
2. 산중일기 ...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원장 송옥스님)	04
3. 발자취 ... 연혁, 아동 및 직원현황	05
4. 처음처럼 ... 가, 7월의 어느 날(김현미)	06
나, 새로운 순간...(김상렬)	07
5. 체험보고서 ... 가, 부곡하와이 얼음조각 얼음축제(미륵방 유유진)	08
나, 경남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회(선재방 이청란)	09
다, 뮤지컬 명성황후(지장방 김신)	10
6. 하계캠프 ... 가, 천방지축 보현의 여행(보현방 김철영)	11
나, 미륵방의 자연 속에서 성장하는 시간(미륵방 전주영)	12
다, 선재방 여름캠프(선재방 전서영)	13
7. 해외문화탐방기1 ... 가, 한마음어울림마당 해외연수“중국문화체험”(안양원 이대웅) ...	14
나, 한마음어울림마당 해외연수“중국문화체험”(정서윤)	17
8. 참 좋은 인연입니다.	20
9. 초록연시 ... 35회 장원 이은미, 차상 석동인, 차하 김철영	27
36회 장원 박사훈, 차상 이상민, 차하 유관종	
37회 장원 석원진, 차상 이명진, 차하 박경주	
38회 장원 황재균, 차상 이수현, 차하 박사훈	
39회 장원 이상민, 차상 김태현, 차하 김 신	
10. 체험보고서 ... 가, 연극 황소지붕위로올리기(미륵방 송우일)	32
나, 고성오광 동계탈놀이 배움터(지장방 유관종)	33
다, 신나는 예술여행 “연극 열쟁이 유씨”(지장방 박의렬).....	35
11. 해외문화탐방기2 ... 가,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보현방 박정민)	36
나, 아시아교류협회 중국탐방(안양원 김종수).....	38
다, 경남 고성군 청소년 미국체험연수(문수방 유승영)	41
12. 요리프로그램 ... 『내가 셰프왕』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김은정)	45
13. 보리수의 이모저모	50
14. 후원해주는 분들	60
15. 나눔의 행복	74
16. 도움주신 분들 ... 후원배너	76
17. 예결산보고	80
18. 사랑의 후원보내기	81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보리수동산 원장 승욱스님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하셨느니라.

많은 불자들이 독송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보왕삼매론의 한 구절이다. 이 보왕삼매론은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 중생을 크게 교화하셨던 묘협(妙叶)스님의 저서인 『보왕삼매염불직지(寶王三昧念佛直指)』 총 22편 중 제17편 「십대애행(十大碍行 열 가지 큰 장애가 되는 행)」에 나오는 구절을 가려 뽑아 엮은 글이다.

보왕삼매론은 일상생활 또는 수행 중에 생겨나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가르침이다. 곧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장애들을 지혜롭게 수용하여 자유와 행복과 청정과 해탈을 이루는 방법을 함축성 있게 설한 것이 보왕삼매론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장애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업보중생(業報衆生)인 우리에게선 쉽 없이 장애가 찾아온다. 싫어해도 찾아들고 미워해도 다가온다. 도망을 가면 더욱 악착스럽게 따라 붙는다.

과연 이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 장애들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싫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장애로운 걸림돌을 무애(無碍)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는 내가 만든 결과물이 나에게로 다가온 것, 그야말로 인과응보(因果報應)기에 온 마음으로 장애를 긍정하고 장애와 하나가 되어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애가 나를 결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삶과 좋은 결실을 안겨준다.

오랜 기간 병을 앓아보니 처음에는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과 원망, 화가 올라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직접 밥을 떠먹을 수 있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만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건강할 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매번 느끼며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챙겨주는 이웃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수록 장애를 큰 스승으로 삼고 보왕삼매론의 가르침 속에서 큰 복전(福田)을 가꿀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어디에 있을까. 모두가 이 보왕삼매론을 통하여 큰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보리수 연혁 · 아동현황

： 보리수동산연혁

1976년			경남 고성 옥천사 청연암에서 아동보호 시작(주지승욱스님)
2000년	06월	15일	"구" 좌련분교 임대(향 후 5년간)
2002년	08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설립 허가
2002년	10월	24일	"구" 좌련분교 매입
2003년	01월	13일	아동복지시설 신고(보리수동산)
2003년	12월	16일	창원전문대학 산,학 협동 협약식
2004년	08월	16일	백두대간 산행
2005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지역 어르신)
2005년	08월	03일	여름불교학교(4박5일)
2005년	10월	22일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2006년	07월	08일	봉림중학교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6년	07월	23일	보리수동산 정토관 준공식
2007년	05월	03일	창원삼정초등학교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07월	21일	거성실업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10월	14일	카페 4주년 & 가을체육대회 행사
2008년	03월	01일	안양원 증축(중고생 입실)
2008년	12월	13일	송년음악회
2009년	09월	16일	경남FC & 보리수동산 경남FC U-15 고성 축구 클럽 창단식
2010년	10월	09일	사랑나눔음악회
2011년	09월	08일	창원교도소 '보라미동우회'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11년	10월	09일	자원봉사체육대회(borisudongsan autumn festival 2011)
2011년	12월	17일	더큰병원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12년	11월	22일	지역 다문화 가족 행사(지구촌 한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2013년	05월	04일	개천면 지역 공동체 어르신 사랑 한마당(어버이날 행사)
2013년	08월	31일	보리수동산 부2동 소방공사 준공
2013년	09월	22일	기능보강사업 아동생활관 준공(선재관)
2014년	02월	18일	결혼이주여성가족동기(다문화가족 위로금전달)
2014년	03월	19일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고성지회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14년	04월	05일	보리수동산 다보탑 및 승욱큰스님 공적비 제막식
2014년	06월	18일	보리수동산 & 영천중학교 자매결연
2014년	12월	05일	보리수동산 &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협약식
2014년	12월	20일	송년축제(겨울 속에 핀 초록연꽃)
2015년	03월	19일	국제로타리3590지구 진주민들레로타리클럽 악기증식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아동현황

구분	연령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타	계
남		6	5	5	12	4		32
여		1	8	3	3	1		16
계		7	13	8	15	5		48

： 직원현황

구분	직책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담요원	사무원	계
남		1	1		4				1	1	8
여				1	9	1	1	1			13
계		1	1	1	13	1	1	1	1	1	21

7월의 어느 날

글 김현미



한 통의 전화가 오면서 7월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설렘과 부담감을 가지고 보리수동산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안녕’이라는 어색한 첫인사와 아이들과의 인연도 함께 시작되었다. 입사 후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던 나에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알려주고 어색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해 주며 이런 저런 질문과 이야기를 해주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보리수동산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아이들과 만났던 날, 너나 할 것 없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인사를 하던 때가 생각난다. 상냥하게 다가오는 아이들, 개구진 표정으로 장난을 걸어오는 아이들, 무뚝뚝한 아이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 당시에만 해도 어쩔 줄 몰라 당황하기 바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마다의 반가움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이 있었기에 빠른 시간 안에 친해 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마음의 거리를 점점 좁혀나가고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제자리에 멈추어 있었을지도 모르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리수동산에서 다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다보니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길다면 길수도 있는 이 시간동안에 2번의 송년축제를 함께 지내고, 산행과 명절 등 특별한 날들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이곳에 녹아들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있는 만큼 나 또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지금도 많은 것을 배워나가야 할 시기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통해 얻고 배워온 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할 때이기도 한 것 같다.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동안 배워온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따금씩 2014년 7월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모든 것이 어색했고,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나 자신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 나에게 다가와준 고마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기에 앞으로 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잘 이어 나가고 싶다.



새로운 순간

글 김상렬



2004년 즈음 이었다. 그해 12월에 나는 한동안 만나지 못한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청련암에 방문해 있던 중이었는데 도착한지 이틀정도 지나서 청련암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보리수동산에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의 송년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송년행사는 한 해 동안 보리수동산에 도움과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을 대거 초대하는 행사라는 설명을 들었고 찾아오시는 손님의 숫자만큼 할 일은 비례해서 늘어 날 테니 간단한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보리수동산을 방문하게 되었다.

보리수동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될까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과 관객들이 참 열심히였다. 아이들이 춤을 추면 환호를 보내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박수를 보내고, 초대된 손님들은 열심히 공연하는 아이들을 보며 응원하고 환호하고 뿌듯해 했다.

공연 하는 사람과 그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함께 즐기는 흥겹고 따뜻한 시간. 이게 내 감상이었다. 정말이지 백 명도 넘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은 딱 한명 밖에 없는 처음 와보는 장소에서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때 가졌던 감상 때문이었을까? 한참이 지난 후 신기하게도 나에게 보리수동산에 입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하기는 했지만 쉽게 마음이 정해지는 일은 아니었다. 이전에 생활하고 있던 곳과는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전에 해오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보내왔던 일상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확실했고 사는 장소부터 근무하는 환경까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놓여질.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자신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어진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2014년 12월 1일에 나는 보리수동산에 입사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처음 한 달간 전체적인 분위기를 익히고 아이들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보리수동산에서 생활했던 12월은 하필이면 큰 행사가 연달아 두 개나 있었던 탓에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기도 했고 사무 업무를 배우기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생활관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차근차근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다. 고민을 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흘러간 15개월. 시간은 빠르다. 보리수동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나는 이 동안 여러 가지 처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일들을 경험했다.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습한 춤을 추기도 했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김장을 담가보기도 했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덕유산에 올라보기도 했고,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떠나보기도 했고, 처음으로 아이들의 연극을 송년축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기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려보았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려보았다.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일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기다려진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맞이할 보리수동산에서의 새로운 순간들이. 그리고 계속되는 순간들 속에서 보리수동산 식구들 모두가 행복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곡하와이 얼음조각 얼음축제

글 미륵방 유유진



오늘은 부곡하와이에 가는 날이다. 처음 가는 부곡하와이에 많은 기대를 안고 도착하여 사진을 찍고 썰매를 탔다. 처음에는 무서웠고 올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무척 재미있었다. 열심히 썰매를 타고 다시 모여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메뉴는 돈가스였는데 동산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점심을 먹은 후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탔다. 여래, 영찬이, 시후와 함께 다니면서 처음에는 빙글빙글 도는 데이트컵 놀이기구를 탔다. 우리는 무척 즐거웠지만 영찬이는 무서웠는지 울기도 했다. 다음에는 여래와 우주전투기라는 놀이기구를 탔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는

기분이었다. 이후에도 회전목마, 미니열차를 탔고 놀이동산에서 더

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 놀지 못했다. 놀이동산 안에는 얼음조각 전시장이 있었고 우리는 그 곳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는 얼음 미끄럼틀도 있었고 다양한 만화 주인공 조각 그리고 가장기억에 남는 겨울왕국섬도 있었다.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고 처음에는 춥고 어두워서 무서웠지만 무척 재미있었던 것 같다. 신나게 놀고 목욕탕에 들어가 언니들과 수영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리수동산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처음 사진 찍은 곳에 모두 모였고 봉사자님들께서 맛있는 호떡과 봉어빵, 음료수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동산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모든 것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함께 썰매도 밧겨주며 챙겨주신 작은사랑회 봉사자님들께 무척 감사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눈썰매뿐만 아니라 놀이동산도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남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회



글 선재방 이청란



올해도 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학동으로 갔다. 작년에 왔던 애들이 많았고 현아언니는 딱 보자마자 알아봤고 현아언니와 같은 밤이 되었다. 현아언니 동생인 현이라는 애와 소이라는 귀여운 애도 있었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점심 먹고 전통체험을 하러 갔다. 전통체험으로 떡 만들기를 했다. 직접 떡을 찧고 콩고물을 묻혀 먹었는데 쫄쫄하고 맛있었다. 다음으로 굴렁쇠 굴리기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 다 못 굴려서 손으로 굴려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활쏘기를 하는데 처음 해 본 활쏘기라 잘 맞춰지지 않았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우리끼리 모여 장기자랑을 하는데 거의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는 친구들도 많았다.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끼가 많은 친구 같았고 춤을 추는데 정말 웃겼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할인심방이라는 퇴계이황 선생님이 남기신 체조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은 뒤 씻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는데 바닥이 뜨거워서 잠이 오질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아침을 먹고 훈장님과 한문공부를 했는데 퀴즈도 많이 내셨다. 퀴즈를 맞히거나 자세를 바르게 앉고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다. 선물은 옷이었고 나는 한문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훈장님께서 자세가 바르다고 선물을 주셨다. 점심을 먹고 조별로 모여 신문 만들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드니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공부하고 간식으로 치킨을 먹었고 나는 양념치킨을 먹는데 정말 많이 먹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씻고 자려고 누웠지만 역시 잠이 오질 않았고 나와 소이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러 갔다. 3일 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선생님이 계속 청학동에 하룻밤을 더 잔다고 장남을 치셨고 속을 뻗었다.

헤어지기 전에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나누어 알까기 대결을 했는데 여자팀이 아쉽게 졌다.

그리고 상장을 받고 점심을 먹고 간식과 짐을 챙겼다. 수련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둘째 날에 삼성궁까지 걷고 삼성궁에서 또 걷고 걸어 다리와 발이 너무 아팠다. 2박 3일 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다.



뮤지컬 명성황후

글 지장방 김신



오늘은 연극부가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러가기로 한 날이다. 오늘 보는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유명하다는 김소현 뮤지컬배우가 명성황후 역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20년 전통뮤지컬이라 그런지 보러온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2층짜리 객석을 뺀뺀이 매울 정도였다. 이 유명한 뮤지컬을 보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뮤지컬을 관람하기 전에 명성황후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니 역사시간에 배운 인물이라 뮤지컬 내용을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



았다. 많은 기대를 안고 뮤지컬은 시작되었다. 명성황후와 고종이 결혼을 하는 장면부터 뮤지컬은 시작되었다. 고종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궁녀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이런 고종 때문에 민비(명성황후)가 백성과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일본은 조선을 뺏기 위해 명성황후와 고종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 결국 고종은 살해되고 명성황후와 세자만 조선에 남게 된다. 궁녀들과 조선 군사들은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떠나지 않는 명성황후를 지키다 살해되고 명성황후 또한 살해된다. 한국역사의 내용을 뮤지컬로 다시 되돌아보는 거라 그것 또한 다른 묘미인 것 같았다. 그리고 암전될 때마다 많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고 명성황후뮤지컬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연극부 선생님께서 뮤지컬을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고 하셨지만 나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대사 대부분이 노래라서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동작들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이 뮤지컬을 마지막까지 보면 박수를 안쳐줄 수가 없는 작품인 것 같았다. 배우들이 춤추는 것도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딱딱 움직였다. 나는 그런 멋진 뮤지컬을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기도 했다. 절정에 다다를수록 어떻게 될까하는 재미도 더해준 것 같다. 처음에는 많은 배우들이 죽는 역할로 나오다 보니 막장드라마 같기도 했지만 거기에 숨은 의도를 찾으려 노력했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국어시간에도 연극 같은 공연과 역사적 배경의 내용을 파악 할 때는 상대의 숨은 의도를 찾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오늘 써먹을 수 있어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보람도 있었다. 이 뮤지컬에서 명성황후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명성황후가 나라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성황후는 자기 궁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 군사들이 와서 죽이는 장면을 보고 너무 슬펐다. 실제 역사에서는 고종이 청나라로 피신을 가고 명성황후는 백성을 지킨다고 궁에 남아 있다가 일본 군사들이 고종을 뒤흔 죽이니 그의 부인이라도 죽이자 해서 명성황후를 죽인 결로 나와 있다. 이 장면을 보다가 명성황후도 같이 피신을 갔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역사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킨다고 한 희생정신이 돋보였고 뮤지컬에서 명성황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었다. 그 노래가 너무 감동스러워 무슨 노래인지 알고 싶어 돌아와서 선생님께 여쭙보니 그 노래는 조수미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부르는 ‘나가거든’이라는 노래라고 하셨다.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에 다다를 때 나는 감탄이 나왔다.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 할 수 있지? 하면서 뮤지컬과 연극을 잘하려면 발성도 좋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또 다른 뮤지컬을 보러 갈 때에는 좀 더 집중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사전에 공부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뮤지컬은 실제 역사와 약간 다르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이 연극을 소개해주신 우리 연극선생님께 매우 감사했다.



천방지축 보현의 여행

글 보현방 김철영



17일 오전 10시쯤 남해로 출발했다. 처음에 독일마을에 가서 경치를 구경했는데 집들이 깨끗하고 너무 예뻐다. 그리고 독일마을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옛날 술을 옮기는 수레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또 파독전시관의 문이 닫혀있어서 너무 아쉬웠다. 독일마을을 둘러보고 다음 장소인 해오름에 술촌으로 갔는데 강아지 석상으로 된 의자 등 다양한 석상들이 너무 귀여웠다. 해오름에 술촌에는 닭, 토끼 등이 있었는데 토끼가 너무 귀여웠다. 토끼에게 풀을 뜯어 주었는데 너무 잘 먹기에 조금 더 주고 나서 말 석상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말 석상을 타고 사진을 찍었다. 해오름 예술촌은 너무 아름다웠다. 점심시간이 다되어 숙소로 가는 길에 있는 자장면 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나서 숙소로 갔다.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튜브를 불고 나서 물에 들어가 기 전에 준비운동을 했다. 물이 너무 차가워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한 뒤 물에 들어가 비치볼로 배구를 했다. 비치볼 배구로 진 팀이 저녁에 고기를 굽기로 했다. 게임이 시작 되고 처음에는 이기고 있었지만 2번째 게임에서 지고 말았고 우리 팀은 고기를 굽기로 했다. 물놀이 후 휴식을 취하면서 한명씩 물에 빠트렸고 택견이 그리고 민영 선생님을 물에 빠트렸다. 물놀이 후 노래방으로 내려갔고 노래를 부르다 탁구와 당구를 친 뒤 다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씻기 위해 방으로 올라왔다. 다 씻고 티비를 보며 간식을 먹었다. 저녁시간이 되어 바비큐 장으로 나갔고 고기, 등갈비, 새우, 삼겹살 등 다양한 음식들을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양념된 등갈비는 아주 맛있었고 꼬치, 새우 등 배부르게 먹은 뒤 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숙소로 올라와 초코파이, 과자를 먹으며 야구를 보다가 동생들이 만화가 보고 싶다고 하여 만화를 보며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만화를 보다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씻고 펜션에서 준비 해준 아침을 먹은 뒤 숙소로 돌아와 방을 청소하고 짐을 챙긴 뒤 보리암으로 출발했다. 보리암으로 올라가는 길이 조금 힘이 들었지만 경치는 매우 좋았다. 보리암을 내려와 상주해수욕장으로 향했고 바닷물에 발만 담그고 사진을 찍었고 피곤해서 그런지 웃지를 못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를 타고 점심을 먹기로 갔다. 점심으로 전골을 먹고 앤젤리너스 커피숍에 가서 쿠엔크를 먹은 뒤 보리수동산으로 돌아왔다. 즐거운 여름캠프를 보낼 있게 지원해주신 stx복지재단 임직원분들께 감사했다.



미륵방의 자연 속에서 성장하는 시간

글 미륵방 전주영



여름캠프로 우리가 간 첫 번째 장소는 원예예술촌이었다. 우리는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입구에서 출발했다. 매화 길부터 은목서향원까지 예쁜 꽃들도 많고 예쁜 집도 많았다. 집 이름은 독특하고 독창적이었다. 진짜 예쁜 집들이 많았는데 그 곳에 실제로 사람들이 산다고 했다. 진짜 부러웠다. 나는 커서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지 걱정된다. 원예예술촌은 가을에 오면 흙집도 덩지도 않아서 진짜 좋을거라 생각했다. 커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다. 다음날에 비가온다해서 원예예술촌을 빨리 다녀왔다. 그 다음 점심을 먹으로 자장면 집에 갖고 찜뽕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배부르게 먹은 뒤 우리는 보리암이라는 절로 가게 되었다. 가기 전에 입구에서 몇 십 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우리는 15분 정도 걸어서 보리암까지 갔다. 분명 15분 거리라는데 한30~40분은 걸린 듯 했다. 경사도 급경사가 심했다. 그래서 힘들었다. 배가 아픈데 힘까지 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땀을 빼고 우리는 펜션으로 갔다. 펜션에 가서 짐을 풀고 바로 물놀이를 할 준비를 했다.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갔다.



처음엔 물이 엄청 차가워서 못 들어 가다가 들어갔다. 수영을 못 하는 터라 튜브를 끼고 들어갔다. 은철선생님께서 오셔서 엄청 재밌게 놀았다. 은철쌤 덕분에 입수를 엄청 하고 물귀신이 되었다. 수영도중 수박도 먹고 초코파이도 먹고 또 신나게 놀았다. 은철쌤이 고기도 맛있게 구워주셔서 배 터지게 먹고 저녁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실컷 불렀다. 그 다음날에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TV를 보다가 짐 정리를 다 하고 점심을 먹으로 갔다. 냉면을 먹는 데 나는 육회 비빔밥을 먹었다. 그리고 사천에 내려와서 빙수와 케익을먹었다. 진짜 맛있었다. 그렇게 동산으로 오게 되었다. 진짜 1박 2일 동안 미륵방이랑 추억이라면 추억이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해서 정말 1박 2일 동안 즐거웠고 앞으로 가게 될 수 있으면 통나무펜션에 갔으면 좋겠다. 1박 2일 동안 이렇게 재밌게 캠프하게 해주신 원장님과 선생님께 감사하고 은철선생님께 우리와 즐겁게 놀아주셔서 감사하고 1박 2일 동안 화도 별로 안내고 즐겁게 놀아준 미륵방 식구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 이렇게 항상 즐거운 미륵방이 되면 좋겠다.



선재방 여름캠프

글 선재방 전서영



오늘은 여름캠프를 떠나는 날이다. 아침을 먹고 짐을 싸 뒤 출발하였다. 남해로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우리는 차 안에서 노래도 들으며 이야기도 하고 신나게 남해로 향했다. 선재방 친구들과 떠나는 여름캠프라 그런지 기분이 좋았다. 숙소로 도착하여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펜션으로 올라가 보니 수영장과 많은 테이블들이 있었다. 우리가 묵을 방으로 들어가니 방이 두 개가 있었고 거실도 엄청 넓었다.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차가웠다. 친구, 언니, 동생들과 즐겁게 놀았고 민지언니가 민경이를 데리고 물속에 들어왔는데 민경이는 물이 무서웠는지 많이 울었다. 우리는 오후에도 계속 수영을 했고 저녁시간이 되어서야 씻고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었다. 삼겹살과 꼬치 등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배불리 먹고 숙소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티비를 보며 간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보리암으로 향했다. 보리암에 올라갔지만 한개 때문에 밭이 보이지 않아 아쉽기도 했다. 보리암을 내려와 아침식사를 하고 수영복으로 다시 갈아입은 뒤 수영을 했다. 수영을 끝내고 원예예술촌으로 향했다. 원예예술촌에 입장을 하니 선생님께서 부채를 나누어 주셨고 더운 날씨에 사용하기 딱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했다. 원예예술촌 안에는 꽃향기로 가득했고 기린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사진도 찍고 요리조리 둘러보니 예쁜 집들도 많이 보였다. 계단을 올라가보니 산처럼 생겼었다. 점심을 먹고 보리수동산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름캠프는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 캠프가 기대된다.



중국탐방 “한마음어울림마당 해외연수”

글 안양원 이대웅



새벽 선생님의 알람이 나의 몸을 일으켰고 나 또한 빠르게 움직여 집을 쫓긴 후 차에 탑승하였다. 탑승 후 밀려오는 잠이 나의 눈을 감기게 했다.

새벽이라 차가 없어 빠르게 김해국제공항까지 갈수 있었다. 차에서 내려 우리가 들고 온 짐을 버스에 옮겨놓고 새로운 친구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버스를 타고 열심히 달려 국제 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다. 나는 솔직히 비행기를 처음 타 보는 것이었고 국제공항이라는 곳도 처음 오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

겠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터라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돈과 짐을 도난당할까봐서도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무사히 짐 검사하는 곳에 가서 검사 후 우리는 짐과 헤어졌다. 그리고 우린 따로 여권을 들고 여러 가지 검사 후 우리가 소지한 돈 약 500엔, 한국 돈으로 약 100,000원 때 인 커다란 돈을 들고 갔다. 난 이 돈을 받고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티켓

을 받고 서운 뺨과 철취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내가 또 한 번 놀란 것이 있다. 그 이유는 국제공항은 정말 넓었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신기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값도 싸서 관광객들에게는 보물창고라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구경한지 몇 십 분 후 모이는 장소에 가서 간단한 인원 체크 후 티켓을 들고 비행기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비행기 안으로 진입했다. 나는 “아 드디어 출발이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내 몸의 피를 타고 뱀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티켓에 적힌 자리를 찾았고 운 좋게 박을 내다볼 수 있는 창가 쪽이었다. 나는 내 앞좌석에 붙어 있는 조



그마한 TV를 발견했다. 처음 보는 것이라 작동 법을 몰라 이리저리 꺾꺾 눌러 되었다. 운 좋게 영화라는 것이 보여 눌러보니 여러 가지 영화들이 진열 되어있었다. 나는 고민 좀 하다 재미있는 영화를 찾게 되었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 대충 “닌자거북”이라는 애들이 나와 어느 한 도시를 지켜내는 내용이었다. 승무원들은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에게 이어폰을 하나씩 돌리고 계셨다. 나는 손을 들어 하나 받고 의자 손잡이 밑에 부분에 있는 구멍에 끼워 넣고 영화를 감상했다. 감상한지 얼마나 지났을까 곧 이륙한다는 승무원의 알림에 영화는 잠시 중지 되었다. 곧 비행기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땅을 딛고 양 날개를 쭉 펴 넓은 하늘로 향했다. 어느덧 우리 비행기는 구름 위까지 올라갔고 아름다운 밑 풍경을 보며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다. 우리가 가는 “한마음 어울림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떠났다. 새벽부터 일찍 나와 아침밥도 먹지 못 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탔으니 배가 너무 고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준다고 하였다. 한 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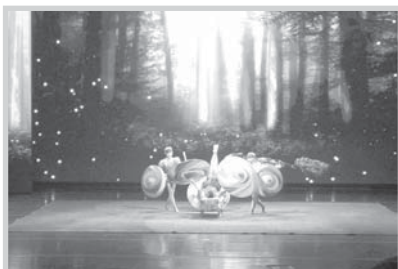
분 나누어 주고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었고 처음으로 기내식을 받았다. 하지만 별로 다르지 않는 식단 이어서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았다. 기내식으로 오믈렛이 나왔다. 생각 외로 맛은 있었기에 기내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영화를 보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덧 베이징에 도착했다. 위에서 베이징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사는 집이 정말 많았다. 나는 전부 비닐하우스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이어서 엄청 놀랐다. 도착과 동시에 땅에 내려서 중국공항으로 향해 우리의 짐을 챙겨 다시 모였고 2박3일 동안 우리를 안내해주실 가이드님을 만났고,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기사님의 버스로 향했다. 우린 처음 만나는 버스 기사님께 “니하오”라는 단어로 첫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찾아 앉았다. 또 다시 인원 체크 후 관광지를 찾아 떠났다. 처음 관광지는 중국 국가 박물관이었다. 이곳은 입장하기 전에 몸수색을 하였고 이런 환경이 처음이라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돈을 내거나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지만 중국은 달랐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알았고 또 때론 귀찮을 때도 있었다. 여기는 일반 박물관과 같이 그냥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림이었다.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전쟁 때의 장면을 몸이 떨릴 정도로 실감나게 그려 놓았기에 놀라웠고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박물관을 마저 돌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어느덧 첫 관광지를 돌아보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첫 관광지도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과연 다음 관광지는 어떨까 두근두근 거리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두 번째 관광지는 천안문 광장이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북경 관광지의 중심이라는 곳이다. 나는 엄청난 웅장함에 놀랐다. 광장 주변에는 인민영웅기념비, 마오 주석 기념당, 인민대회당 등이 있었고 중국정권 수립식 및 국경일 의식도 천안문 안에서 행해진다고 한다. 이렇게 두 번째 관광도 끝이 나고 어느덧 세 번째 관광지로 이동하였다. 중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자금성이라는 커다란 궁궐에 왔다. 이곳은 정말 길고, 넓고, 커서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자유 시간을 주셨다.

우리는 그 자유 시간을 이용해 기념을 남기고 싶어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나니 주신 자유 시간을 다 사용했고 한마음 어울림마당 멤버들은 가이드님을 따라 많은 곳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기념사진도 찍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도 남겼다. 오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후 점심밥을 먹으로 갔다. 중국의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먹기 조금 힘들었지만 이렇게라도 중국의 문화를 느껴보는 경험을 해 보니까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왕부정거리라고 하는 곳에 갔다. 이곳은 중국에 오면 꼭 한 번씩은 와 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는 정말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이 여기저기 팔고 있다. 난 서운선생님과 철희의 뒤를 열심히 따라 다녔다. 걸어 다니다 옆에 중국음식으로 만두를 팔고 있어서 큰맘 먹고 하나 사서 먹어보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 맛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았다. 맛이 약간 시큼했고 양념 때문인지 내 입맛이 이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맛이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갑자기 생각난 원장님의 선물.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니 도자기가 보였다. 원장님은 차를 좋아 하셔서 멋진 도자기를 샀다. 이렇게 신기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어느덧 저녁 우린 숙소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든든히 밥을 먹고 숙소를 나섰다. 둘째 날 첫 관광지는 무려 6,500km나 되는 만리장성이었다. 이곳은 우리가 7박6일이라도 다 못가는 거리이기에 조금만 가기로 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열심히 오르니 옛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



이 들었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았다. 너무 무리해서 계단을 올랐는지 다리가 뭉쳐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 평생의 소원 중 하나는 이루었으니 참기로 했다. 시간가는 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덧 저녁 우린 중국의 소림 무술 쇼를 보러 갔다. 자리에 앉아 십여 분이 지나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과 목탁소리가 넓게 울려 퍼졌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장면이 많았기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다. 무술 쇼를 마무리로 세무천계라는 곳에서 한30여분 구경 후 숙소로 향했다. 우린 깨끗이 씻고 중국 과자를 먹어보기로 하고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와 뜯어 먹으며 중국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마지막 날 눈이 떠졌다. 몸을 이끌고 나와 짐을 챙겨 2008년 올림픽 경기장과 751예술거리라는 곳을 빠르게 구경 후 중국에 온 것과



같이 공항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 후 우린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역시 다시 돌아가는 게 믿기지 않았다. 벌써 2박3일이 지나가다니, 더 재미있게 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반면 중국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있었던 2박3일 동안에 중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제28회 한마음어울림마당
해외연수 “중국문화체험”
2015.01.21~2015.01.23

주최: 경산문화재단 후원: 경남문화재단 주최: (재)경남문화재단, 나노아이비(주)



중국탐방 “한마음 어울림마당 해외연수”

글 정서윤



꿈만 같았던 2박3일 중국문화체험을 다녀온 오늘 중국에서 가져온 많은 추억들과 사진을 정리하느라 하루가 빠듯하였다. 간단한 정리를 마친 뒤 중국에서의 즐거웠던 시간들과 생생했던 감동과 추억을 모두 표현 할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나의 추억을 남기고자 글로 적어본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이 없었던 나에게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 또한 멀게 느껴졌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 못 이룬 날도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 당일 매일 아침잠과 싸우고 지쳐 다시 잠들곤 하는 우리 대웅이와 철휘 또한 일어나라는 나의 손길에 후다닥 잠자리를 정리하였다. 우리의 보급자리 보리수동산과 잠시 이별 한 뒤 우리는 차에 몸을 실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과하고 두근거리는 심장과 기대감에 잠은 달아나고 첫 여행을 벅찬 감정과 혹시나 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속이 복잡해지는 듯하였다. 2박3일 동안 함께 여행할 다른 보육원 선생님들과 아동들을 만났다. 한 없이 밝기만 하던 대웅이와 철휘도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에 한없이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비행기가 힘차게 하늘위로 날아올랐다.

뿌연게 하늘을 덮은 스모그가 많다는 주변 소식에 걱정이 되었지만 중국도 우리를 환영하는 듯 이례적으로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는 가이드님의 말씀에 이번 중국 여행의 시작이 매우 밝았다. 중국의 주변 경치를 구경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몸을 실고 바쁜 일정 속으로 들어갔다. 첫째 날은 중국의 유명 문화재인 중국 국가 박물관, 천안문, 자금성 등을 구경하였다. 북경에 위치한 유명 문화재를 구경하면서 그 거대함과 장대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한국에 비하면 정교함과 세심함이 다소 부족할 지라도 끝도 없이 이어진 성문이 매우 신기하였다. 또 하나의 성문을 통과 할 때 마다 다른 느낌과 볼거리로 지나간 거리가 힘들지 않을 만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역사적의미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 여행을 오기 전에 아동들과 사전에 관광명소들을 검색하며 사진위주의 학습만 했을 뿐 그곳에 대한 역사공부를 좀 하고 갔었더라면 그 문화재에 대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또 중국 국가박물관에서는 아쉽게도 한국어의 설명이 없었고 가이드님과 떨어져 개별 관광을 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많은 사진들과 문화재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지만 다 풀지 못한 채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 치





우친 점이 아쉬웠다.

유명 문화재를 구경하면서 관광객 한 명 한 명의 옷과 가방, 몸을 수색하는 검문대가 아주 많았다. 한 편으로는 추운 날 옷을 벗고 입고하는 과정이 힘들지 몰라도 자신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추운 날에도 검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야 우리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에 휩싸이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제가 중국을 본받아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게 해준 문화재 관광을 마친 뒤 아동들이 가장 기대하고 가고 싶어 했던 왕부정거리로 향했다. 정말 좁은 거리 양쪽에 많은 먹물 거리와 볼거리가 줄지어 이어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이곳이야말로 중국을 보고 체험 한다는 생각이 들어 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이 왕부정거리

에서 철회의 활약이 눈 부셨다. 중국인과 동화되어 물건에 대한 가격도 줄이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 바디랭귀지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중국 문화를 몸으로 체험한 철회의 얼굴은 밝아 보였으며 짧았던 왕부정거리에서의 관광이 아쉬웠는지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였다. 눈과 귀가 즐거웠던 서커스 관람을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빠듯했던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첫째 날의 고된 피로에 힘들었지만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일정은 바로 만리장성이었다. 만리장성의 날쎈 바람으로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대웅이와 철회의 옷가지를 꼼꼼하게 살핀 후 우리는 목적지로 향했다. 높다높은 만리장성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아이들과 나는 입을 벌린 채 한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긴 곳을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렸다니 정말 중국의 대표 문화재로 자랑할 만 한가치가 있어 보였다. 만리장성은 꼭 정상까지 올라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올라갔지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계단의 높이도 가지각색이었고 너무 가팔라 금세 지쳐 버린 나를 끝까지 밀고 올라가준 철회가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중국의 풍경은 잊을 수 없었다. 넓은 땅에 세워진 장대한 문화재들과 현대식 빌딩들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였다. 다른 시설보다 남다른 체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 손에 이끌려 높이 올라가 기념사진도 찍고 간단한 담소를 나눈 뒤 서둘러 내려와 만리장성 주변을 곳곳이 다니며 사진도 찍고 바쁘게 돌아 다녔다. 단체로 움직이고 관광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 안에 많은 곳을 구경 하려는 욕심에 아이들과 함께 열



심히 다녔지만 항상 떠날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만리장성을 뒤로 하고 우리가 향한 곳은 이화원 이었다. 이곳은 간단히 설명하면 청나라 서태후의 별장이라고 하였다. 아이들과 나는 서태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수집한 뒤 서태후가 별장으로 만들어 죽기 전까지 생활하였던 이화원관광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손으로 짚다는 큰 호수였다. 그림을 좋아했던 서태후는 창문 하나하나 각기 다른 그림을 손으로 그렸고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수는 정말 아름다웠다. 또 추운 날씨에 호수가 얼어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더해져 별장다운 여유로움까지 느껴졌다. 그다음 일정은 바로 인력거와 7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전통 한옥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전통가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새로운 가이드 아저씨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거리 건너편에 줄지어 서있는 인력거 자전거들이 시선을 끌었다. 잠시 후 우리는 인력거에 몸을 실었고 차가웠던 중국의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즐거웠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여행객들을 위한 묘기도 보여주시고 서툰 한국말까지 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으로는 인력거의 빠른 스피드에 소리도 지르고 주변 풍경을 구경하면서 신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여행객의 몸무게와 인력거의 무게가 더해져 어마어마한 무게를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두 다리를 이용해 달리는 아저씨의 뒷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모국을 방문해준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하루가 저물고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이를 동안 밝은 하늘을 보여줬던 베이징의 날씨가 마지막 날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오늘따라 우중충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2008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및 751예술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국 북경 2박3일 일정이 최종 마무리 되었다.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권이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어른을 공경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문화는 동일하였으며 식당과도 비슷한 것 같았고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문화발전으로 인해 식당과 호텔의 서비스면에서 섬세하지 못한 시민문화가 눈에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섬세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점을 느꼈다. 중국은 넓은 대륙과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느꼈으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훗날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나라이다. 또 아이들과 나에게 이런 넓은 세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1. 2015.02.16 외환은행 진주지점 직원분들이 동산을 방문
하시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2. 2015.02.16 삼성테크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생필품이
가득 들어 있는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3. 2015.03.01 부산선광사신도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맛있
는 점심과 예쁜 신발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후
원해 주셨습니다.



4. 2015.03.14 울산소원성취사신도님들께서 방문해 주셨
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한 가득 가지고 오
셨습니다.



5. 2015.03.19 국제로타리3590지구 진주민들레로타리클럽
에서 창립10주년 기념행사 및 악기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야단법석밴드부 아이들을 위해 멋진 악기들을 기증해 주
셨습니다.



6. 2015.04.26 삼별회 후원자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결연
후원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7. 2015.07.19 고성군 한·일교류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오카카키국제교류회에서 동산을 방문하여
한·중·일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하였던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풍물공연 및 시설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8. 2015.08.23 두산중공업 바비큐파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와 꼬치 등 맛있는 음식들과
노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9. 2015.09.15 고성경찰서 정성수서장님과 직원분들이
동산을 방문하여 원장님과 담소를 나누시고 아이들에
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0. 2015.09.17 고성군교육지원청 김정희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하여 후원금 전달을 위해 동산을 방문
하셨습니다.

11. 2015.09.21 경상남도청 농수산물 유통과 김종환과장
님과 직원분들이 동산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해 후원
물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12. 2015.09.21 경상남도청 예산과 박준규님과 직원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동산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3. 2015.09.22 보리수동산과 자매결연 맺은 삼정자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운영위원회분들이 동산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14. 2015.09.23 고성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이 동산을 방문하시어 아이들을 위해 과일과 라면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5. 2015.09.25 창원교도소 불심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한 가득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16. 2015.10.04, 경상남도 최고장인회에서 동산을 방문하시어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후원물품도 주셨습니다.



17. 2015.10.07 새희망씨앗과 보리수동산이 아동 나눔교육카드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18. 2015.10.0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에서 맛있는 과자선물과 후원금 전달을 위해 동산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9. 2015.10.17 고성군공무원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을 청소해주시고 주변 환경정리도 해주셨습니다.

20. 2015.10.19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고성군청 농축산과 과장님이 쌀을 가득 싣고서 동산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1. 2015.10.24 창원봉림사관음회 신도분들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가지고 동산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2. 2015.10.24 경남시민봉사여단 문화교류활동행사가 있었습니다.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즐거운 체험 부스도 있었고 다양한 공연들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23. 2015.12.11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임직원분들께서 동산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24. 2015.12.15, 아람나무 후원단체에서 보리수동산 아이들을 위해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필요물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25. 2015.12.18 창원한화테크원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26. 2015.12.22 창원정상로타리클럽 송년의 밤 행사에서 기업과 매칭하여 사랑의 봉사금전달식이 있었고 후원 받은 전달금의 아이들의 프로그램실 보수공사에 사용 됩니다.



27. 보리수회 회원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시고 동산 주변 환경정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28. 셋째 주 일요일은 미용하는 날 입니다. 천사미용 봉사팀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 주십니다.



29. 과수사랑회 학습봉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30. 아이멘토링은 경상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가르쳐 주고 고민상담도 해주는 봉사단체입니다.



31.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로 둘째 주 일요일 점심을 책임지고 있는 락락봉사회입니다.



32. 옷수선봉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아이들 옷을 수선해 주시기 위해 넷째 주 일요일 마다 동산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33. 쉬고 싶은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동산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보련회 특식봉사입니다.



34. 신우회 특식봉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장치킨, 양념치킨 등 다양한 맛의 치킨을 만들어 주십니다.



35.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리까지 해주시는 불여새(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봉사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36. 또래 친구들이 일대일 멘토가 되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어린친구들과도 잘 놀아주는 진주학습봉사 친구들입니다.



37.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자장면과 탕수육을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무학사석식봉사입니다.



38. 현대자동차고성점에서는 아동결연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에게 읽을 책과 후원금 등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39. 초등학생들은 미술수업을 중,고등학생들은 타로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는 포르투나 봉사팀입니다.



40. 나눔의 향기 봉사자분들이 방문하셔서 아이들과 산책도 해주시고 재미있는 만들기 프로그램도 해주셨습니다.

♥후원자님, 봉사자님 작은 희망이 모여 보리수동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이렇게 맺어진 우리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
 누락된 분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다음 소식지 발간에 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제35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35회 장원
선재방 이은미

생일

이어지고 또 이어지곤 하는 생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반복될 생일

그러다 내 몸이 늙어 죽는 날
결국 생일은 멈추고
또 다른 생일을 얻는다.



35회 차상
지장방 석동인

신호등

언제나 함께
또 따로 감박이는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친구들

언제나 교통정리를 해주는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친구들



35회 차하
보현방 김철영

신호등

신호등은 자기 멋대로다.
신호등이 빨간불을 켜면 우리는 멈추고
초록불을 켜면 가고 노란불을 켜면
조금 기다린다,

신호등은 교통경찰이다.
자신이 신호를 보내며
교통경찰처럼 한다.
신호등은 교통경찰이다.

제36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36회 장원
지장방 박사훈

연등기도

연등을 단다.
청련암 대웅전 관세음보살님 앞에

대웅전에 달린 수많은 연등
설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중에 나의 이름이 적혀있는 연등
기도한다.

연등은 밝아지고 있다.
연등은 내 마음과 같이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 졌다 한다.

다른 연등과 합쳐져
밝기는 밤을 낮으로 만든다.



36회 차상
안양원 이상민

연등

한 꽃잎, 두 꽃잎
연등을 만든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등을 만든다.

죄를 지어 저옥에 간 이들을 위해
먼저 죽어간 이들을 위해
나는 연등을 만든다.

그 연등으로 불을 밝혀
죄를 지어 저옥에 간 이들을
먼저 죽어간 이들을 구제해 주어야지



36회 차하
지장방 유관종

연등

여러색의 연등
알록달록 한 연등

연등의 색처럼
마음속도 알록달록

우리 마음 속 연등을
부처님이 잘 찾도록
밝게 비추어 드리자

반짝 반짝 우리 마음 속 연등
부처님이 보시고 방긋 웃으시네.



제37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37회 장원
선재방 석원진

소나기

여름이 되면
항상 찾아오시는
단골손님

언제나 나의 우울함과 울적함을
들여다보시는
단골손님

단골손님은 언제쯤
여름이란 가계를
찾아오지 않으려나



37회 차상
안양원 이명진

거미줄

요즘 거미가 판을 친다.
밖에서나 놀 것이지
방안까지 들어와서
판을 벌인다.

구석구석 몸을 치며 잘도 논다.
파리 한 마리 붙여주면 잘도 먹고
모기 한 마리 붙여주면 잘도 먹는다.
놀이 좋아하고 안 움직이는 게 으뜸 녀석



37회 차하
미륵방 박경주

거미줄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
자유로이 날갯짓하지 못하는
저 나비가 꼭! 날 보는 것 같다.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해
슬퍼하고 있는 저 나비가
왜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제38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38회 장원
안양원 황재균

화채

화채는 꼭 저장방 같다.
화채 안에는 사이다, 수박, 후르츠,
얼음 등이 들어간다.
청량함을 주는 사이다는 웃음이 많은
종수 같고
차가운 얼음은 시크한 정재형 같고
사각사각 수박은 얼굴이
네모난 성현이 같고
달콤한 후르츠는 득수, 재균,
희민이가 섞여 있는 것 같다.
하나하나 맛은 틀리지만
같은 방에 섞여 있으니
화채만큼 시원하고 더욱
맛있는 것 같다.
화채는 저장방 같다.



38회 차상
안양원 이수현

바다

갈매기 게륵게륵
조용한 바다

한적한 바다
외로운 갈매기

갈매기가 읊니다.
날아가며 혼자 읊니다.



38회 차하
지장방 박사훈

사

전봇대 위에 앉아 있다.
조용히 앉아 있다.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
전깃줄에 또 다른 적선이 생겼다.

적선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수다.



제39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39회 장원
안양원 이상민

빈집(공허함)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
집안에 남은 건 오직 나뿐이었다.

고민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고
배가 고프는데 어머니가 없고
놀고 싶는데 누나가 없다.

이 집안에는 나와 공허함만이 남아
서로 손을 꼭 잡으며 가족을
그리고 있다.



39회 차상
안양원 김태현

빈집

우리 집은 안전한 빈집
아무도 없다
우리 집의 경호원들을 소개한다.
가구, 벽, 공기, 개가 지키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집
최고의 경호원들 가진 우리 집



39회 차하
지장방 김 신

빈집

나는 학교가고 어머니는 시장가고
아버지는 회사가고 큰형은 알바가고
작은형은 합숙가고 동생은 유치원에 가고

그렇게 좁다한 집이 아주 널널한
빈집이 되었는데.
텅텅빈 우리 집

연극 “황소 지붕 위로 올리기”

글 미륵방 송우일



오늘은 연극반에서 “황소 지붕위로 올리기”라는 연극을 보러간다고 하였다. 처음으로 보는 연극이라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공연장에 입장하여 공연을 보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황소 지붕위로

올리기라는 연극은 직장을 잃은 지 5년이 넘은 남편과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직업인 아내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탈출을 꿈꾸며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된다. 여행을 하던 중 첫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또 싸우게 된다. 학창시절 불국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편을 위해 아내는 불국사에 가기로 한다. 불국사를 가는 도중 차가 고장이 나고 지나가던 스님이 정비를 전공하였다며 차를 봐주지만 정비를 전공을 한 스님은 거짓말이었다. 남편과 아내는 불국사 쪽을 바라보던 중 아내는 듣지 못했지만 남편과 연극을 보던 나는 종소리를 들었고 아마 아내 빼곤 다 들었을 것이다. 종소리가 끝나고 나서 자세히 들어보니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하는 말은 개가 짖는 소리라며 음~메 하면서 흥내를내는 부분이 꼭 개그맨 같았다. 또한 이 연극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연극을 하는 두 배우가 일인 다역을 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스님, 잡상인, 순경 등이 되고 아내는 옛 애인, 이웃집여자 등 다양한 역할들을 해내는 모습들이 신기하기도 했다. 이번 연극 관람을 통해 연극수업에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었고 다음에도 이런 연극을 보게 된다면 재미있고 유쾌한 연극 공연을 보고 싶다.



고성오광대 동계탈놀이 배움터

글 지장방 유관종



고성오광대에서 전수를 받는다는 말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춤을 잘 추지도 못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보리수에서 고성오광대전수관을 가는 동안 긴장도 되었고 1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성오광대 숙소에서 다른 교육생이 준비가 되지 않아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교육실로 향했고 거기엔 다른 교육생인 신라대학교 무용과 누나들이 있었고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나이차이도 많이 나지만 위압감도 느껴졌다. “최대한 빨리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오광대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하고 설거지담변과 청소구역을 정하였고 우리는 설거지를 일, 월, 토 이렇게 하기로 했고 샤워실과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했다. 청소가 정해지고 저녁을 먹는데 신라대 형, 누나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 조금 긴장이 되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긴장했던 것이 풀릴 때 쯤 다시 모여 춤 연습을 하였고 기본무를 배우는데 큰 걸음, 작은 걸음 등 여러 가지를 연습하였다. 열심히 따라했고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첫날이라 적응도 잘 안되고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 조금씩 풀리니 기분이 좋았고 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이렇게 하루가 즐겁게 지나갔다. 오광대에 온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운동을 하기 전 모두가 모여 열린 아침마당이라 하여 각 팀 대표가 나와 자신의 장기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아침부터 장기자랑을 하니 아침을 활기차고 즐겁게 웃으니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하루를 춤으로 시작했다. 어제 제일 기분이 되는 큰 걸음, 작은 걸음을 배우고 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춤이 조금 쉬워졌다. 신라대학교 누나들은 작년에 와서 배웠다고 우리보다 쉽게 기본무를 했다. “나도 일주일 뒤에는 저렇게 출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열심히 하고 춤을 배우고 땀 흘렸더니 배가 고파졌고 마침 점심식사시간이 되었다. 밥을 먹고 난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주는데 오후 춤 시작 전까지 취침을 하였다. 기본무가 생각보다 어려워 많이 연습하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니 몸이 많이 피곤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후 수업부터는 신라대학교 누나들과 따로 수업을 받았다. 누나들은 작년에 배워서 그런지 우리보다 빨리 이해하고 무용과라서 그런지 춤을 익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우리는 단시간에 누나들을 따라 잡기 위해 따로 트레이닝을 받았다. 우리는 기본무에 중요 핵심 포인트만 배웠고 기본무는 다 같이 추는 것이기에 몇 동작을 줄여서 시작을 했고 외우기 훨씬 수월해졌다. 수요일 날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열



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쳐져 따라가기 어려워 지금배운 것만 될 때까지 연습하였다.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만 참으면 되니 열심히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몸이 힘들고 다리 근육이 뭉칠 때 쯤 쉬는 타임이 왔다. 너무 힘들었던 탓에 쉬고 싶었지만 내일은 기본무를 검사받는 날이었기에 열심히 연습을 했고 수업 진도를 계속 나가더 힘들었지만 마지막 기본무였기에 힘들어도 참고 즐겁게 하였다. 내일은 꼭 열심히



하여서 잘 했다는 소리와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였다. 4일차 드디어 검사를 받는 날이 다가왔고 오전까지는 기본무를 연습 하고 오후에 검사를 받는다고 하였다. 드디어 검사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처음으로 탈춤 무대에 올랐고 물론 탈은 쓰지 않았지만 엄청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신라대, 한양대, 보리수동산이 하나 되어 춤을 추었고 너무 재미있게 춤을 추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즐거운 흥이었다. 사람 40명이 세미나실에 모여 있으니 동산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단체 생활의 재미를 알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도 화를 안내시고 좋은 말씀으로 웃으면서 우리가 웃도록 즐겁게 하여 같이 인도 해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리수동산의 생활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것이 즐거워야 잘 되듯이 화내면서 하면 선생님도 우리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지듯 우리를 즐겁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은 개인무를 연습해야했다. 보리수동산은 1~5과장 중에 2과장, 5과장을 배웠고 2과장 말뚝이와 양반이 어우러져서 말뚝이와 양반이 싸우는 내용이고 5과장은 영감, 큰 어미, 작은 어미, 황봉사, 마당쇠가 어우러져 이야기를 만들어 내용이었다. 나는 무슨 역할을 할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누나가 말뚝이 역할을 권유했고 나는 말뚝이 역할을 하기로 했다. 말뚝이는 망한 양반이었다. 백성들의 편을 드는 양반은 나라에서 망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똑똑한 것은 말뚝이었다. 말뚝이를 하면서 누나들과 친해졌고 누나들에게 말뚝이 춤에 어려운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누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덕분에 춤을 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탈놀이를 배웠다는 것에 정말 즐겁게 생각하고 생각 외로 재미있게 일주일을 마쳐서 좋았다. 길게 느껴졌던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웠던 것 같다. 다음엔 더 길게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제대로 확실히 배우지 못한 것에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형, 누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형, 누나들과 헤어지면서도 친해진지 며칠 안 되지만 너무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에도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연극 “염쟁이 유씨”

글 지장방 박의렬



오늘 오후 우리에게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오셨다. 처음 보는 연극에 정말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처음엔 ‘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재미없을 것 같았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 아버지께서 너무 재미있게 해주셨고 드디어 1인극이 시작되었다. 이 연극을 보면서 ‘염’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주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다. 염쟁이 유씨는 조삼대대로 염을 직업으로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난 염쟁이가 평생을 염을 하며 시체들을 많이 만나보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염을 하기로 결심하고는 몇해 전 자신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에게 연락을 한다. 그 기자역할을 옆에 있던 김동우선생님이 하셨다. 염의 과정 중 반합이라는 것은 시체를 깨끗이 씻기고 옷을 따뜻하게 입히는 과정이고 소렴은 사람의 몸에서 썩은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7개의 구멍을 모두 막는 과정이라고 하셨다. 소렴을 하는 중에 잠사치가 나왔는데 약간 사기꾼 같아 보였다. 잠사치는 돈만 밝히고 우리에게 명함을 주는데 유씨 아버지가 막아주셨다. 조폭을 염하면서 겪었던 조폭귀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유쾌했다. 또 연극을 하시는 중간 중간에 퀴즈도 내주셔서 지루하지 않고 좋았다. 이어서 대렴에는 수위를 입히고 봉대로 감는 과정이었다. 염을 하면서 유씨 아버지가 겪었던 얘기를 해주셨다. 그 중 자식들의 역할을 우리 아이들이 맡아서 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염을 하고 아들, 딸들이 제를 지내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을 유씨 아버지가 대신 해주셨고 아이들이 연기를 잘 하기도 했지만 정말 웃겼다. 마지막 염은 유씨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입관을 하고 난 뒤 절을 올려야 하지만 유씨 아버지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절을 하지 못한다며 연극을 관람 중이었던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다. 모든 연극이 끝이 나고 유씨 아버지가 남긴 말 중 “죽음을 두려워 말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도시에 살지 않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연극이었지만 먼 거리를 한 달음에 달려 와주신 유순웅선생님과 스텝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고 싶은 연극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연극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글 보현방 박정민



크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나라, 중국을 간다는 것이 처음엔 실감 나지 않았다.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중국으로 간다는 것이 실감났다. 출국수속을 하고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긴장감과 설렘이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대기권에 접어들면서 기내식이 나왔고 기내식을 다 먹을 후 앞좌석 시트에 스크린이 있었고 스크린으로 안내를 받은 후 잠을 청했다. 중국에 도착해 짐을 가지고 나오니 중국을 안내 해주실 가이드가 계셨고 인사를 드린 후 중국 일정이 시작되었다. 중국에 도착해 저녁으로 중국음식을 먹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서커스를 보러갔다. 서커스 단원들을 보면서 체조 선수들이 놀았다.

서커스 단원들은 백핸드와 핸드스프링을 계속 선보였고 서커스가 이정도면 금면왕조는 어느 정도로 스케일이 클지 기대가 되었다. 둘째 날 아침밥을 먹은 뒤 만리장성으로 갔다. 만리장성 앞에서 웅장함과 크고 길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올라갈 때 정말 힘들었다. 계속 올라가다 다 왔다 싶어 밑을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엄청 작게 보였고 중국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조금 더 올라가니 쉬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쉬다가 현이형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어서 그걸 먹고 힘을 내

어 열심히 올라갔다. 더 올라가서 보니 좋은 풍경이 보여 사진을 찍고 더 올라가기 시작했다. 높이 올라가다 보니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조별로 내려왔다. 내려온 다음 밑에서 명십삼릉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명십삼릉에는 황제 13대의 무덤이 있는데 각 무덤들마다 상징하는 동상과 황제의 무덤 뒤에 의자도 있었고 무엇보다 경비가 정말 삼엄했다. 둘째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현지식 저녁을 먹은 뒤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셋째 날 아침 천안문 광장을 시작으로 모주석기념관, 자금성 등을 구경하였다. 천안문 광장에는 가다 보니 너무 더워 물이 필요했고 천안문 광장 주변을 둘러보자 그곳엔 쓰레기가 하나 없었다.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없으니 갑자기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쓰레기들이 생각나서 후회가 막심했다. 우리나라를 더 깨끗하게 보호해 주고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안문 광장을 지나 모주석기념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또한 경비가 정말 삼엄했고 그곳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계속 건다보니 모택동(마오쩌둥)의 사진이 있었고 그 분이 화살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지배에도 나온다고 하니 정말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았다. 다음 자금성으로 갔다.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며 이곳엔 명·청시대에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부르던 24명의 황제가 살던 궁궐이다. 자금성에서 '자금'이라는 이름은 북두성의 북쪽에 위치한 자금성의 천자가 사는 곳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이다 보니 전국에서 건축 재료를 모아오는 데만 해도 12년이 걸렸고 3년에 걸쳐 약 50만명의 인부가 공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금성 크기는 동·서로 750미터, 남북으로 960미터 길이에 총면적이 72만㎡로 경복궁의(34만㎡) 2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10미터 높이의 성곽과 깊이 6미터, 너비 52미터





의 해자가 있어 섬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성의 방은 무려 9.999개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갓 태어난 황제의 아들이 매일 밤을 바꾸어 잔다고 치면 한 바퀴 돌아 태어난 밤에 이르면 27세가 되고 두 바퀴를 돌고 나면 54세로 죽음을 준비할 때까지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렇게 셋째 날도 끝이 났다. 넷째 날에는 중국에 완전히 적응 된 것 같았다. 그래서 밥도 익숙하게 바로 먹을 수 있었다. 넷째 날 일정은 천단공원 그리고 왕푸징거리, 까르푸 마트였다. 천단공원에 들어서자 둥근 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벽에서 대고 이야기를 하면 반대 쪽 까지 그 이야기 소리가 드릴 정도로 섬세하게 작업했다고 한다. 그 길이가 193.2m의 회음벽이 정말 신기했다. 그 다음 왕푸징거리로 발걸음을 뒀다. 왕푸징 거리는 원래 왕가의 우물이 있던 곳이어서 우물이 있던 그곳은 아직도 그 청동 표식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 곳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꼬치 음식이 있었다. 난 그중에서 양꼬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전갈은 작으면서 고소하다고 했는데 먹어보지는 못했다. 참새도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고 그렇게 넷째 날도 빠르게 지나갔다. 다섯째 날에는 북경대학교, 청화대학교, 이화원, 789예술구 등으로 갔다. 북경대학교 쪽으로 걸어가는데 100년 정도 된 건물도 있었고 대학교에 조금 더 들어가니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북경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라 한다. 그 다음 이화원으로 갔다. 가서 서태후가 산 곳은 정말 사치스럽다고도 하고 그 곳의 복도가 북경에서 제일 긴 복도라고 한다. 그 곳은 정말 크고 웅장했다. 다섯째 날이 끝나고 십찰해, 남라고항, 현대자동차 한국문화원에 갔다. 십찰해는 정말 아름다웠다. 원래는 10개의 사찰이 있어 십찰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지금은 광화사만 남아 있다고 하셨다. 십찰해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곳이었고 남라고항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두꺼비 소리가 나는 목탁 같은 것을 샀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 곳이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에는 기계와 로봇으로 조립과 프레스 공정에서 보는 로봇들이 정말 인간이 이렇게 많이 발전 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끝나고 이 곳 중국의 일정도 마무리 되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고 가이드님과 중국에서 모든 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다.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에 대해 조금은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시아교류협회 중국탐방

글 안양원 김종수



아시아 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Global Project Go! China(GPGC)에 참여하여 7월 19일~8월 1일까지 중국 탐방을 다녀왔다.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 탐방 확정 소식에 많이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4년 전에 갔었던 산동대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이번 탐방에서 하게 될 여러 가지 체험들과 문화유적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겪게 될 수많은 추억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고도 무거웠다.

7월 19일 새벽 일찍 일어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많이 긴장해서 인지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 뜯눈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다. 공항 도착 후 함께 떠나게 될 인솔자 선생님 두 분과 나를 포함한 단원들까지 만나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만난 단원들과의 짧았던 첫 대면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제는 중국에서의 일정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중국에서 내딛은 첫발은 처음 느껴보는 향취와 분위기는 아니지만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제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 탐방단원들과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 2주를 생활하게 됐다.

둘째 날부터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스케줄은 오전에는 수준별 중국어수업과 오후에는 시내탐방, 문화유적지탐방, 전통공연관람 등 다채로운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하였다.

2주 동안 수준별 중국어수업을 필수로 들어야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다. 중국어에 대해 공부한 적도 없고 한자를 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열의를 가지고 초급반에 들어가 '정말 내생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다. 오후에 문화유적 탐방을 나가면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든 말해 보기위해 노력했고 대화가 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업시간이 기다려지는 건 나의 19년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내의 중국문화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을 볼 수 있었던 시내 탐방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때 조별 미션은 목적지까지 모이는 것이었다.

목적지에 가기위해 잘하지도 못 하는 중국어를 해서 길을 물어보고 대화가 안 될 때는 몸으로 의사전달을 하면서 물어물어 목적지에 도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바다에 도착하여 같이 갔던 단원들과 사진도 찍었고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줄 선물도 구입했기에 더 기억에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중국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 외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고 그 덕에 목적지에 별 탈 없이 갈 수 있었던 가장 큰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화사청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관중석에 앉아 테마별로 무대가 만들어져 있었고 중국역사에 대한 뮤지컬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우리가 소박하게 느끼는 그런 소극장에서의 뮤지컬이라기보다 엄청 큰 감 위에 큰 배를 띄어 보는 관람형 공연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로 설명해 시각적으로 밖에 볼 수 없었지만 간간히 들을 수 있는 중국어는 공연을 보는 내내 즐거움을 주는 아주 큰 요소가 되었던 것 같다.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국 역사를 관광객에게 예술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든다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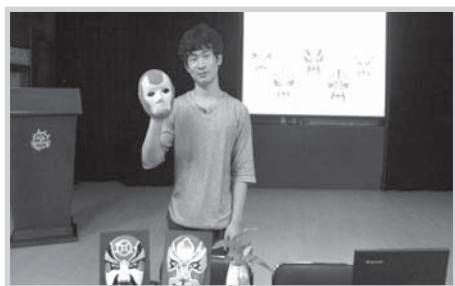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만약 능력이 된다면 일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역사 공연을 화사청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산둥대 한국어과 형, 누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푸다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중국 산둥대에 다니고 있는 한국어과 형, 누나들과 한조를 이루어 시내 곳곳을 탐방하는 것이었다. 한국어과 누나라서 한국어를 좀 하셨지만 의사소통에는 무리가 많았다.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야기에 집중하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기억이 난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시내에 있는 다양한 볼거리나 유명한 음식점 같은 곳을 갈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가 중국에서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은 태극권을 배우는 것이었다. 태극권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실제로 중국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의욕이 앞섰었다. 태극권을 배우기 위해 수업을 들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내가 배우는 것이 쉬운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곧 잘 따라 할 수 있었다. 원을 그리며 상대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중국의 태극권은 중국황실에서 군사 훈련을 시킬 때도 사용했던 무술이라고 한다. 태극권 수업을 마치고 시내에서 받은 발마시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안락함의 최고라고 단점 지을 수 있었다.

마시지는 당연 최고였지만 마사지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다. 매일 20명 정도의 성인 남녀를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다. 나도 한국에 돌아가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할 이유를 찾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중국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다. 우리 탐방단원과 유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 대학생 형, 누나들과 함께 만두를 만들었다.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만들었





기에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청일전쟁의 순간을 담은 박물관을 관람하러 갔다. 중국 탐방을 오기 전 학교에서 청일 전쟁 파트를 공부했기에 나는 더욱더 큰 흥미를 가졌다. 전쟁 당시 사용했던 대포들과 총들도 전시 되어있었는데 옛날에 사용한 것치고는 현대의 무기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청일전쟁으로 피해를 봤던 일반 백성들을 도식화 한 것도 있었다. 청일 전쟁당시의 참혹함과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세세하게 표현한 것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화사청과 같이 예술적으로 우리나라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진화된 나라라 생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비춰지는 중국의 모습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만 바라봐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스케줄에 따라 활동하다보니 어느 순간 속소

를 떠나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만큼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폭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13박14일의 아쉬운 중국탐방이 끝이 나고 속이 후련한 느낌도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게 다시 GPGC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다시 참여하여 후회되지 않을 탐방활동을 하고 싶다. 끝으로 중국탐방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청소년 미국 체험연수

글 문수방 유승영



나는 이번에 10월13일~10월22일 9박 10일간 청소년 미국 체험연수를 가게 되었다.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고성군에서 주최하는 미국체험연수에 성적우수 학생으로 선정이 되어 청소년 미국 체험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동경하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부모님과 상의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 같이라며 흔쾌히 허락 해주셨다. 얼마 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미국연수에 함께 갈 친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학교 친구들도 내가 미국에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잘 다녀오라는 말을 건네주며 격려해주었다.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는 당일이 되었고 한번 더 짐을 확인 한 뒤 모임 장소인 고성 공설운동장으로 향했다. 함께 미국 체험을 가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김해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갔고 처음 와 본 인천국제공항은 굉장히 크고 웅장해 놀라웠다. 오랜 기다림 끝에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령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설렘이 가득 했지만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결코 짧지 않은 비행시간 동안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동안 모은 정보를 정리 하며 알찬 미국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마침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였고 미국에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항에서 만난 미국 사람들은 매우 여유가 넘쳐 보였고 높은 건물이 그저 신기하고 앞으로의 여정이 너무 기대되었다. 제일 먼저 한인 타운으로 향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첫 음식으로 설렁탕을 먹었는데 한국에서 먹었던 거와 달리 미국에서 먹으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그리피스 천문대에 방문하였다. 그리피스 대령께서 천문대와 전시장을 지을 땅을 로스앤젤레스에 기부하여 생겨난 곳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천문대처럼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 보다 낮았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야경이 밝지 않아 별이 잘 보였기 때문이라고 가이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 또 할리우드 거리도 구경하러 갔다.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배우들의 손과 발자국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할리우드 기념품도 볼 수 있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할리우드 배우들의 자취를 눈으로 보고 느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빼듯한 일정이었지만 다양한 구경거리와 미국 거리의 풍경이 피곤함도 느끼지 못 할 만큼 즐거웠고 참문에 비친 소소한 풍경들도 너무 멋있었다. 이러한 장면들을 다 사진에 담아 오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다음으로 비버리힐스로 이동하였다. 비버리힐스는 할리우드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유명한 영화배우와 사업가들이 사는 곳으로 고급스러운 주택단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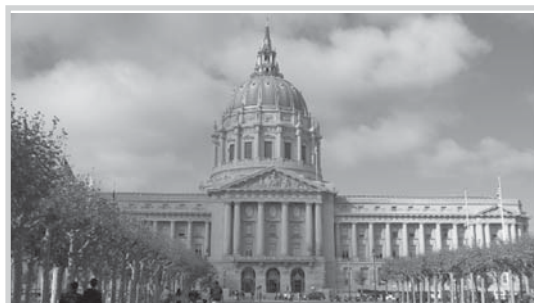
많이 형성 되어있었다. 비벌리힐스를 관광하니 나도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거주 하고 있다고 하니 더 주의 깊게 관광하였다. 오후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그곳으로 향하였다. 호화롭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맛있어보였지만 생각보다 음식이 많이 짜서 먹기 힘들었다. 하지만 문화를 이해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먹으니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끝낸 뒤 Garden Suite 호텔로 향하였다. 미국 호텔은 씻는 곳에 배수구가 없어 욕조에서 씻어야 한다는 것과 신발을 신고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색달랐다. 위생관리와 집 정리를 하고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 하며 잠이 들었다. 둘째 날, Wilson 중학교로 출발하였다. 거기서 서로 홈스테이를 할 가정과 만나게 되었다. 내가 만난 친구는 Mark라는 친구였다. 서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2교시 과학수업을 들었다. 영어로 대화 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과학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수업 분위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았다. 한국과 달리 반 전체 학생들이 수업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고 더 신기한 것은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반으로 이동하는 것도 신기했다. 그런데 미국 친구들도 우리가 신기한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기도 하였다. 영어로 회화를 하다 보니 처음 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았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Mark의 집으로 갔다. Mark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무척 반가워하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밥을 먹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셔서 저녁으로 중국 음식을 먹게 되었다. 맛은 있었지만 너무 많은 양에 못 먹고 있자 다 안 먹어도 된다고 배려해주셨다. 식사를 끝내고 시내구경을 가게 되었는데 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즐거웠던 만큼 둘째 날이 빨리 마무리 되었고 어김없이 미국에서의 셋째 날이 밝아 왔다. 오늘도 변함없이 Wilson중학교에 갔다. 어제 본 친구들도 있었고 새로 본 친구들도 있었다. 모두가 우리를 반겨주며 편하게 해주었다. 즐거움도 잠시 이제 친해지고 편안해 지니깐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친해진 친구들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컸다. 집에서는 Mark의 어머니께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공원에 가자고 하셨다. 공원에 가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농구 게임도 하는 등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뒤 넷째 날 아침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였다. Mark와 많이 친해지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고 학교와 친구들과 짧은 시간 이었지만 점이 많이 들어 헤어진다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가 간 곳은 GCC(Glendale Community College)였다.



GCC는 1927년에 설립된 학교인데 고성에서 학교를 나와 지금 그 학교에 재학 중이신 최수정 학생과 만났다. 학교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그 학교에서 느낀 점은 공부하는 느낌이 너무 자유로워서 좋았던 것 같다. 다음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은 IN-N-OUT 햄버거 집에서 먹었는데 서부에만 있고 신선하기로 유명한 햄버거집인 만큼 너무 맛있었고 한국 햄버거와는 또 다른 맛이였다.

모든 식사를 마친 뒤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 갔다. 1919년에 개교된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로 사립 종합대학교였다. UCLA는 한눈에 보기에 크기가 무척이나 크고 웅장했다. 다음은 Best buy 라는 가전제품 매장을 갔다.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물가가 비쌀 줄 알았는데 한국





보다 전자제품의 물가가 확실히 저렴했다. 다양한 전자제품 구경을 모두 다 끝내고 파머스마켓과 그로브몰을 구경 했다. 파머스마켓은 농축산물을 파는 가게였고 그로브 몰은 너무 크고 넓었다. 살 것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아서 좋았다. 즐겁게 쇼핑을 끝내고 저녁을 먹고 Garden Suite 호텔에 도착하였다. 위생 관리를 하고 짐정리를 마친 뒤 취침에 들었다.

다섯째 날,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니버설스튜디오에 가게 되었다. 유명한 영화의 세트와 촬영장면과 스텐트 쇼를 관람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었다. 차를 타고 ‘한국 놀이 공원과과는 어떤 다른 느낌일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처음 유니버설투어를 탔는데 유명한 영화장면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신기한 세트장면도 많이 보았다. 갑자기 불이 나오는 장면과 동물 속에 들어가서 보았던 그래픽 영화가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3D를 탈 수 있었다.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별로였다. 그래도 영화를 이렇게 놀이기구로 바꾼다는 것이 정말 기발했다. 그 다음 쥐라기 월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공룡 모형이 실감나게 잘 표현되었던 것 같다. 특히 마지막에 떨어지는 부분은 정말 스틸 넘쳤다. 미라클러코스터도 탔는데 미라좀비 손이 천장에 있어 오싹하였고 갑자기 멀컴하더니 속도가 빨라져 무섭기도 했다. 그리고 워터월드라는 공연을 보았는데 영화세트장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였지만 영화가 흥행을 하지 못해 세트장을 이용해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스쿠터를 타고 물 위를 달리며 폭발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다. 공연을 다보고 자유시간이 주어져 뽑기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 아쉬웠다. 자유시간도 끝이 나고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날이라 이 숙소에서 마지막 밤이 될 것 같다. 여섯째날, 오늘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덴마크 솔벳마을이었다. 미국인데 덴마크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덴마크의 느낌, 건물양식 등을 볼 수 있었다. 안데르센의 동상도 있었고 풍차들도 많았다. 제과점도 있었는데 맛있는 빵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솔벳마을 관광을 끝내고 다시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페이블비치라는 곳인데 한눈에 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두 번째로 큰 골프장과 17마일드라이브도 있었다. 해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머물 숙소는 CLARION HOTEL이다. 전 숙소보다 더 넓어서 마음에 들었고 다음날이 기대되는 밤이었다. 일곱째날, 아침이 밝았고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시청을 보러갔다. 시청의 지붕이 전부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값 비싸 보이는 건물이었다. 건물이 웅장하기도 하고 멋있는 느낌을 받았다. 시청 옆에 있는 도서관을 구경하러 갔는데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 나까지도 독서를 하고 싶게 만들었다. 도서관을 나온 뒤 버스를 타고 피어39를 갔다. 피어39는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있는 2층 목조건물로 부두위에 건축되어 있었다. 사업가 워런 시몬스(Warren Simmons)가 건설하여 1978년에 개장했다고 하였다. 부두위에 있는 물개들과 여러 가지 물건을 구경하며 나는 초콜릿 스토어에서 다양한 간식거리를 구입하였다. 조개스프와 빵으로 간단한 점심식사를 한 뒤 샌프란시스코의 엄청난 건축물인 golden gate bridge 금문교에 갔다. 조셉 B.스트라우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처음에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였을 때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조셉 B.스트라우스는 끝까지 노력하여 페리선사업자와 공학전문가들을 설득시킨 탓에 2.8km가 되는 금문교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금문교를 걸어서 건너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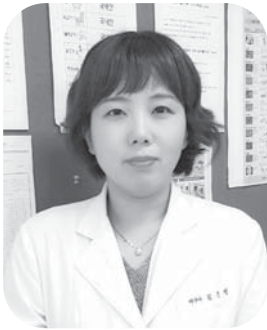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에 갔다. 몇 번 들어본 학교였는데 그 곳에 가게 된다니 감격스러웠다. 가이드선생님께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셨다. ‘릴랜드 스탠퍼드’가 15세에 죽은 외아들을 기리기 위하여 ‘릴랜드 스탠퍼드’로 설립하였다고 한다. 6년간의 공사를 마쳐 1896년에 555명의 학생을 받아들여 개교가 된 대학교라고 하셨다. 또한 서부의 하버드대학이라는 별명의 가질 정도로 유명한 대학교라고 한다. 앞으로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여 이곳에 입학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나라서 더 열심히 학업을 이어가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관광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였다. 여덟째 날, 관광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진한 아쉬움을 느꼈다. 모다 아울렛에 방문하였는데 일종의 쇼핑 물이었다. 우리나라의 모다 아울렛은 큰 건물이 몇 개 있었지만 여기는 작은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지갑이 낡았었는데 50% 할인 된 가격에 저렴하게 새로 구입하여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으로 UC 버클리 대학에 갔다. 이 대학은 보리포니 아주 중부에 있는 버클리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1868년 캘리포니아 최초의 대학으로 설립 되었다. 이곳에 처음 한국 사람이 있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보게 되어 정말 반가웠다. 도넛을 팔고 계셨는데 대학 가이드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도서관과 기숙사 등 건물과 본관을 가보았는데 건물이 전부 큰 것 같았다. 다음으로 DVC라는 대학에 갔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프레젠틀힐에 위치한 대학으로 100개가 넘는 학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일정이 마무리되고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아쉽기도 하고 한국이 생각나기도 하며 잠을 이루기 힘든 밤이었다. 아홉째 날, 한국으로 귀국 하는 날이다. 그동안 함께 한 친구들도 아쉬운 듯 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서 12시간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미국연수를 다녀 와보니 세계를 보는 시선이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이번 연수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더욱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여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미국 연수를 가기 전에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지만 그곳에서 대화를 해봄으로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많이 향상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미국 연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성군청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내 인생의 정말 값진 추억으로 남을 9박 10일간의 길기도 짧기도 했던 미국 연수 활동이었다.



『내가 셰프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글 영양사 김은정



1. 목 적

2015년 아동들의 일상에 필요한 요리를 직접 해보는 “요리하는 천사”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방별로 메뉴선정, 시장보기, 요리하기 등 하나의 요리를 만들기까지 처음부터 계획하여 마지막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면서 아동들이 주방장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동시에 요리에 대한 개별 평가(아동)를 통하여 요리에 대한 재미와 발전(요리기술)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그 것을 바탕으로 2016년 겨울방학기간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에서 벗어나 각방별 요리 실습을 통해 더욱 발전 된 요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목 표

각방별 메뉴 짜기(레시피포함)를 실시하고, 메뉴별 레시피에 대한 식재료는 단체구입을 하고 같은날 동시에 방별 요리대결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단의 평가를 기준으로 셰프왕을 선정한다. 지금까지의 요리평가 는 각 방별 아동평가단의 평가서 작성에서 일부 아동들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결과로 프로그램 본래 취지와 다르게 마무리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번 요리대결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음식이 만들어지는 전과정을 직접 실습하면서 서서히 음식 만들기에 재미를 부여하여 음식에 대한 친 숙함과 조리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학교나 일상에서의 요리실습 시간이 즐거워지는 아동들 의 마음가짐을 전환하는데 그 기초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개 요

1) 대 상 : 전체아동대상, 유아제외 (선생님포함)

번호	소속(방명)	아동명	실시날짜	비고 (담당선생님)
0	전체아동	전체아동 오리엔테이션 실시	2016.1.08(금)	프로그램설명
1	보현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6.1.20(수)	000 000
2	지장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문수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미륵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	안양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	선재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기 간

- 오리엔테이션 : 2016년 1월 08일(금요일) 10:00 ~ 10:30

- 일시 : 2016년 1월 20일(수요일) 10:00~18:30

(문수방, 보현방, 지장방, 선재방, 미륵방, 한양원 동시실시)

3) 장 소 : 각 아동숙소

4) 답 당 : 영양사 김은정, 요리평가단 (사무실선생님, 조리원)

5) 내 용 : 메뉴구성(레시피), 요리하기, 평가 및 뒷정리 (각방별 식재료는 단체구입)

4. 예 산

예산과목			방명	메뉴	금액 (단위: 원)	산출근거(주재료)
관	항	목				
사업비 (시설)	운영비	생계비	선재방	김밥, 떡볶이, 순대 (김, 떡, 순)	○○	밥, 김밥용김, 단무지, 우영조림, 햄, 어묵, 계란, 당근, 깻잎, 시금치, 치즈, 마요네즈, 순대, 떡볶이떡, 양배추, 대파, 고추장, 고추가루, 설탕, 물엿, 후추, 깨소금, 맛소금, 참기름, 쌈장 등
			보현방	계란을품은토스트 김치볶음 베이컨말이	○○	식빵, 딸기잼(꿀),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햄, 계란, 버터, 밥, 신김치, 베이컨, 설탕, 참기름, 통깨, 김, 식용유 등
			문수방	스팸김밥 라면볶이	○○	스팸, 김밥용김, 깨소금, 맛소금, 계란, 밥, 치즈, 라면사리, 대파, 양파, 고추장, 설탕, 물엿, 치즈가루, 랍 등
			미륵방	삼각김밥만들기 -고추참치, 참치, 스팸	○○	밥, 고추참치캔, 참치캔, 스팸, 마요네즈, 삼각김밥용김(들)
			지장방	목살스테이크 고추잡채 *꽃빵	○○	돈육(목살-스테이크용), 대파, 감자, 버터, 레드와인, 비비빅아이스크림, 레몬, 당근, 돈육(잡채용), 파프리카, 양파, 청, 홍초, 고추기름, 굴소스, 참기름, 꽃빵, 허브솔트 등
			한양원	통닭이나르샤 (치킨&닭다리)	○○	닭, 닭다리, 우유, 마늘, 양파, 진간장, 설탕 등 (광파오르기 준비)
			총 ○○○원 (밥, 김치, 기타 양념류제외)			



5. 평가결과

1) 프로그램 평가

- 작년에 『요리하는 천사』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동들이 평소애 배우고 싶었던 메뉴를 선정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고르고 시장보는 요령, 물건선택방법등도 함께 익히며, 재료 하나하나를 손질하고 음식의 순서등을 학습하면서 본인이 주방장이 되어 모든 과정을 체험 하고 맛보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보완하여 2016년 『내가 셰프왕』프로그램의 이름처럼 각방별 요리대결을 같은날 동시에 실시하여, 공정한 요리평가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셰프왕을 선정하게 되면서, 아동들의 요리대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각방별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내면서 팀웍의 중요함과 함께, 방별 아동들의 서로에 대한 친화력도 높이는 효과를 함께 이룬 것 같다.



- 요리평가단의 음식에 대한 냉철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 선택에 대한 노력과 음식의 맛, 위생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방별 특색이 다양하고 모두들 프로그램을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진지하여 각방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기가 힘들었다.

- 같은날 동시에 각방별요리를 실시함으로써 재료비 절감과 시간·노력들이 많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다음 프로그램은 같은 메뉴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요리실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듯 하다.

2) 소감문 및 만족도 평가

(1) 대상:

- 프로그램 담당자: 영양사
- 프로그램 참가아동: 유아~고3학년 아동(선생님포함) 각방별 실시
- 요리평가단: 사무실선생님(사무국장·과장·생활지도팀),영양사,조리원

(2) 내용:

- 프로그램담당자: 프로그램 과정 기록일지 작성(각방별 개별작성)
- 요리평가단: 프로그램 참여도 및 음식에 대한 맛 평가(평가서 작성)
- 프로그램담당자: 프로그램 참가아동 평가지 작성 및 요리평가단 설문지 통제
- 프로그램참가아동: 프로그램 참가 소감문 작성

(3) 결과: 프로그램참가아동 평가서 첨부(요리평가단용)

(보통영양사) 『내가 셰프왕』 프로그램 참가아동 소감문(평가)			
성명	영양사		
일시	2016년 1월 20일(수) 10:00 ~ 18:00		
내용 (4행소문)	프로그램 참가아동(유아)	『내가 셰프왕』 프로그램 참가아동	
	* 프로그램의 목적성·효과성·영양성·위생성 등 평가항목 기재부제		



[illegible][illegible][illegible]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겨울방학이면 우리들의 요리 실력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요리하는 천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꼭 일등하고 말거예요,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와 웅장한 밴드소리가 더해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은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이번 어린이날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비눗방울놀이도 하고
에어미끄럼틀도 타고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야호! 매년 겨울이면 떠나는 작은사랑
나들이~신나게 눈썰매도 타고 맛있는
점심과 놀이기구를 타고 놀다보면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와요,
아쉽지만 다음에 더 재밌게
놀게요, ^^*



전통 등공에 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전통 등에 어리둥절
하기도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완성된 작품들을 보니
부듯하기만 하네요,



제1회 전통등 강습회

주 회 :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후 원 :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정관암, 특별강사 : 이기원
일 시 : 2015년 3월 7일 (토) ~ 2015년 4월 4일 (토)



영유아프로그램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키즈 앤 체험나라에 다녀왔어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다보니 벌써 하루가
저물어 버렸네요, 더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아이들입니다,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stx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보리수동산 하계캠프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맛있는 바비큐를 마음껏 먹고 시원한 물놀이도 즐기며 더위를 떨쳐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 보낼 작은 사랑
부곡하와이 수영장 나들이에 모두가
들며있어요, 시원한 물속으로 퐁-땡!!!



최은경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피부에 좋은 천연재료들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 천연제품을
만들었어요, 언제나 건강미 넘치는
피부를 위해 노력할게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보천도에공방에서 실시하는 '토요일은 흙이 좋아'에 참가하여 내손으로 직접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영화 및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영 선생님의 지도 아래 보리수 백일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리수백일장을 통해 아이들의 운문과 산문, 올바른 문장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월14일 정재우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우가 건강하고 올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오감으로 즐기는 가루야가루야 체험전에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만지고 반죽해 보며
쿠키도 만들고 동물들도 만져보며
즐거워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고성 오광대 탈놀이 배움터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탈과 춤을 함께
배우며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연극배우이신 유순웅 선생님께서
1인극인 염생이 유씨를 보여주시기 위해
보리수동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10월 01일 고성군 사회복지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만든 도자기와 신발 작품 등을 전시하며 솜씨 자랑도 하고 보리수동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리수동산 여름 풀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물놀이에 꼭 빠진 아이들은 나오기 싫어 울기도 하고 물이 무서워 도망가기도 하며 각자만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유아들을 위해 작은사랑에서 킹콩채널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신나게 뛰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저희 아이들을 위해 나눔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올 해는 덕유산 겨울산행을 떠났습니다.
눈싸움도 하고 전투식량도 먹고 멋진 눈꽃을
보며 겨울 산을 등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오소방서에서 동산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안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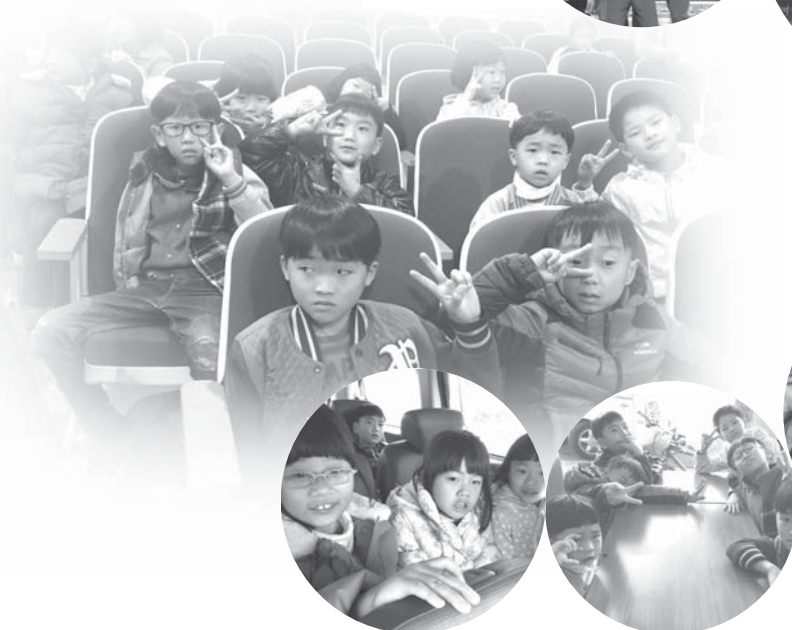
경성대학교 학생들과 KTN가사회공헌팀에서
아이들과 나무심기,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문화나눔 연극반 친구들이
유명한 명성왕후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역사 이야기라 지루할 줄 알았던
뮤지컬에 푹 빠져 버린 아이들!



고성군에서 주최하는
드래곤길들이기2를 관람하고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과학교등학교 학생 두 명과 어머니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과고학생들은 일대일 멘토 수업을 어머니는
포일아트수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타, 드럼 등 자기가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밴드부 수업입니다,



영남사물, 태평소, 모듬북을 배우는
품물시간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열심히 연습해
많은 무대에 초청되어
멋진 공연을 하고 돌아옵니다,





국술! 아이들의 체력과 심신을
단련시키고 격파, 낙법, 호신술 등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국술을 배우고 있어요.



밴드, 풍물뿐만 아니라 기타도 잘 치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 저도 악기가 배우고 싶어요,
석가탄신일과 송년축제에서 멋진 무대를 펼친
아이들이 자랑스럽기 만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던 정토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밴드부실, 미술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로
바뀌어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1월 강옥환 문경련 장영수 김민호 김소연 김순점 이상흠 강효상 조원의 김해원 박덕해 백금옥 노영도 김주희 김은희 김진영 김보열 이항래 장원주 진순옥 정정숙 이마트단체지원금 임화연 조필준 김필성 김은희 이복기 안용호 김해원 김종진 최상태 박국원 김옥화 김형열 윤정자 김재호 왕인준 공인배 조성진 윤현순 김종진 김영재 박우찬 김필성 최임숙 정영숙 정정자 정정순 방이호 이순복 홍은정 이미경 노주현 조원의 심은숙 최임숙 김시달 강성진 윤현순 하현희 박재홍 주신옥 이현숙 최연익 최인선 박정숙 한선희 제성호 박경대 우영숙 하현희 유상우 정유섭 심은숙 손해식 차기훈 배상림 최인미 허광도 박정숙 권종영 정창민 장형선 전득곤 최유리 이해경 맹길재 박경자 우영숙 운홍사 김재룡 장인옥 김연순 최홍래 이영수 강대균 박종문 이수미 정인숙 박태순 손해식 이승미 최원옥 최유리 전평일 조민주 김향숙 이상근 윤정수 이창훈 김주애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수미 박우진 김양현 운홍사 윤현식 이지선 박태순 진영천 이상태 이춘달 이미영 김인호 장연주 백장흠 (주)동명특수강 이용진 이태호 법장사 전평일 김진규 구영숙 김양현 배정도 황정훈 조정남 양미모 김용진 임세종 성명숙 명정식 김승선 신민기 김무립 진영천 이태현 구나운 법장사 백산개발(주)동아기업 이상근 고난조 허혜자 성양원 진재분 정해숙 박우진 구나운 우태영 배정도 이윤봉 윤정숙 김무립 이연화 오경옥 이숙이 박은정 김석연 김순희 박선자 김옥순 최윤경 윤정숙 주경선 백산개발(주)홍세표 김민자 우태영 김성범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이경순 김보열 전부근 김용호 이무제 김선숙 김민자 임상보 이연화 양수미 김순찬 주경선 이용권 정중숙 정숙향 홍정숙 안규철 이두래 대각디앤씨(주) 황희석 이창식 김순찬 최문정 김성범 이우종 김희정 임상보 윤복연 청호건설(주) 손윤기 문갑례 김성호 이충림 치마저고리 정숙자 김희정 추상근 이용권 정성종 이민자 최문정 이계숙 김정옥 윤상일 최연경 김인수 박항진 최중용(법성) 정인숙 이민자 김영길 광병대 문상필 이해경 추상근 한화조 박치훈 이재동 윤정애 신창환 예금이자 강쌍범 공납이 이해경 이태희 윤지희 백상호 이승진 이태희 이영자 김수정 하부영 김재숙 강정덕 김혜숙 박종근 양승원 황진두 김선희 강연옥 안미경 황진두 김선희 서양순 황종관 서도순 정미순 홍순화 김태형 이상백 양승원 김애숙 성미란 이재정 이호길 김애숙 성미란 서영문 정지숙 윤정향 변재범 김철영 하정자 이용성 양승원 이봉자 정심아 박현숙 박정현 이봉자 정심아

2월 강옥환 박연순 정지숙 김보열 김순점 홍순화 이무제 강영화 이영숙 최원옥 최상태 배상림 조점순 장원주 김재숙 대각디앤씨(주) 최중용 이창식 정은영 이지선 정영숙 문경련 김석순 김석연 김소연 강정덕 치마저고리 김선숙 김영화 구영숙 차기훈 서양순 김수정 손윤기 윤정애 정미순 황희석 정병하 이태현 조민주 강희순 허혜자 윤상일 성양원 김순화 강쌍범 정인숙 이윤봉 이상태 김향숙 홍정숙 안규철 장연주 김태형 박종근 신민기 홍세표 김재룡 박치훈 김형열 이재동 이영수 김혜숙 이영미 광병대 양수미 황정훈 김말순 양미모 허광도 이창훈 이현이 이상백 윤지희 이우종 (주)동아기업 이숙이 주신옥 김용진 임세종 하정자 이용성 이재정 정성종 주신옥 이충림 방이호 이상근 박정숙 이상흠 노주현 박현숙 문상필 호전종합건설 이춘달 김민호 서도순 윤정자 이미경 강효상 백금옥 백상호 박재홍 김정옥 최인미 이미영 최인선 한선희 임화연 이복기 안미경 오경옥 이상근 박은정 최연경 김인수 정창민 공인배 김영재 최숙자 이계숙 정숙향 김연순 장영수 진순옥 왕인준 제성호 김시달 박정현 윤복연 청호건설 하부영 윤정수 이순복 박종문 장형선 유상우 노영도 김보열 조정남 최연익 문갑례 변재범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강영란 맹길재 안용호 김보열 이현숙 최홍래 윤정향 신창환 (주)동명특수강 최효집 이승미 박우찬 박국원 정정순 황종관 고난조 김순희 명정식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유)에이치에스관리 김현주 강성진 정정자 이향래 이경순 이두래 전부근 김옥순 최윤경 윤현식 정유섭 서영문 김옥화 김인호 김성호 김철영 정해숙 남경남 박인령 박경자

3월 진재분 이상태 이충림 이상근 최연익 윤정애 권종영 김순화 장형선 조원의 심은숙 이혜경 백금옥 안미경 김애숙 김종진 김재호 황정훈 이숙이 고난조 허광도 김소연 백장흠 이수미 이수미 조원의 우영숙 손해식 이복기 박정현 이봉자 최임숙 김용호 (주)동아기업 박치훈 이경순 안규철 김재숙 김재호 이수미 이수미 조필준 최유리 운홍사 김영재 노영도 김주희 하현희 백장흠 오경옥 김말순 손윤기 김용진 정미순 진재분 이용진 이용진 조성진 박태순 전평일 김시달 안용호 김해원 이혜경권종영 호전종 합전철 이상근 양미도 최연경 김순희 김용호 (주)동명특수강 노주현 정인숙 김양현 진영천 유상우 박우찬 김필성 손해식 강옥환 박재홍 이춘달 주신옥 김다현 김인수 서진호 정해숙 박우진 구나운 법장사 배정도 땡길재 정유섭 윤현순 운홍사곽선자 윤복연 정숙향 박은정 김정진 이순복 정정숙 김옥순 김승선 윤정숙 김무립 백산개발(주) 김진규 박경자 심은숙 전평일강대균 이계숙 청호전철(주) 이재동 문갑래 진순옥 박향진 이무제 조원의 김민자 우태영 이연화 박인령 최원옥 우영숙 진영천김주애 서영문 조경남 윤상일 윤정수 변재법 김순화 최중웅(법성) 조성진 김순찬 주경선 김성범 이영숙 이지선 최유리 배정도성명숙 박국원 장영수 서도순 이두래 신창환 김태형 치마저고리 조필준 김희정 임상보 이용권 정은영 구영숙 박태순 이연화박정숙 김보열 이향래 윤정향 허혜자 전부근 이희연 황희석 조원의 이민자 최문정 유은지 김영화 구나운 김양현 김성범홍은정 정정자 정정순 하부영 장연주 홍순화 하정자 강쌍범 (유)에이치에스관리 이혜경 추상근 황성옥 예금이자 윤정숙 법장사 이용권서진호 박연순 김옥화 김민호 이영수 김철영 김종선(제이에스무역) 박종근 이태호 황진두 이태희 류해명 이태현 김민자 김무립 유은지김진영 이영자 이현숙 김석연 이창훈 예금이자 이상흠 이상백 정숙자 김계동 김선희박미경 이윤봉 김순찬 우태영 황성옥정정숙 배상림 정지숙 김인호 최인선 강대균 이미경 이영미 최윤경 김애숙 성미란 박수영 홍세표 김희정 주경선 류해명박향진 문경련 김수정 김형열 박정숙 곽선자 한선희 이용성 이창식 이봉자 정심아 곽병대 양수미 이민자 임상보 박미경 최상태 서양순 황종관 장원주 윤정자 성명숙 정창민 강효상 공남이 김주희 김은희 윤지희 이우종 이혜경 최문정 박수영차기훈 김향숙 김연순 김보열 임세종 박정숙 제금자 임화연 남경남 김해원 김종진 강연옥 정성종 이승진 추상근 정영숙 김보열 최인미 방이호 성양원 김주애 왕인준 공인배 박정대 김필성 최임숙 이재정 문상필 황진두 성미란 김재룡 김정옥 이미영 최홍래 김순점 홍은정 박종문 제성호 정숙자 윤현순 하현희 박현숙 백상호 김계동 정심아

4월 강옥환 한학조 김수정 허광도 윤정애 서진호 이상흠(이비인후과) 이용성 남경남 이영숙 정유섭 김태환 서양순 고난조 이영자 변재법 정정숙 이마트단체지원금 이영미 박정대 정은영 박경자 대각디앤씨(주) 김향숙 이현숙 장원주 이영수 김재호 왕인준 장형선 정숙자 김영화 최원옥 최상태 배상림 양미도 윤정수 진순옥 홍은정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강효상 이태호 방만혁 이지선 홍정숙 문경련 황종관 최홍래 김순점 김용호 이미경 임화연 박우진 서해인 구영숙 박재홍 이춘달 박은정 최연익 이순복 백장흠 한선희 공인배 곽병대 이태현 이상태 이상근 이경순 김인호 김철영 권종영 정창민 노주현 윤지희 이윤봉 김재룡 김말순 최인미 김다현 홍순화 강대균 박종문 제성호 강연옥 홍세표 차기훈 이숙이 손윤기 김정진 박정숙 진재분 제금자 이수미 이재정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양수미 황정훈 이충림 김연순 김석연 윤정자 성명숙 김순화 이수미 박현숙 이우중 (주)동아기업 정숙향 이재동 홍정숙 최인선
곽선자 (주)동명특수강 이용진 백금옥 정성종 오경옥 청호건설(주) 윤상일 김보열 정미순 김주애 김옥순 이태호 이복기 문상필
정영숙 김보열 하부영 안규철 장연주 박정숙 정해숙 박우진 김영재 백상호 호전종합건설 조정남 윤정향 김용진 이창훈 대각디
앤씨(주) 이무제 최운경 김시달 안미경 윤복연 김정옥 이미영 문갑래 임세종 박향진 최중웅(법성) (유)에이치에스관리 유상우
최영숙 이계숙 박치훈 이상근 주신옥 김순희 김태형 치마저고리 김승선 땡길재 박정현 박국원 이향래 서도순 최연경 성양원
김혜숙 황희석 전득곤 이승미 노영도 김보열 정정순 김민호 이두래 김인수 이희연 강쌍범 이재현 윤현식 안용호 정정자 김옥화
김형열 김재숙 신창환 하정자 박종근 이창식 최시혁 박우찬 서영문 정지숙 방이호 김소연 전부근 김혜숙 이상백 김선숙 박인령
강성진

5월 김석순 김보열 최인미 하부영 박정숙 서진호 치마저고리 공납이 김희정 성미란 왕한석 방민혁 구영숙 강옥환 정정자
김연순 허혜자 김순희 정정숙 최중웅 최운경 이민자 정심아 광병대 서혜인 최상태 배상림 황종관 김민호 성양원 김재호 황희석
남경남 이혜경 김종진 윤지희 이태현 차기훈 문경련 김정옥 장원주 정미순 대각디앤씨(주) 강쌍범 이창식 황진두 최익숙 강연옥
이윤봉 박재홍 서양순 김수정 김형열 이두래 김태형 박종근 김선숙 김애숙 하현희 이재정 홍세표 정영숙 김향숙 정지숙
방이호 변재범 이희연 예금이자 세종가구백화점 이봉자 이혜경 박현숙 양수미 이상태 장영수 장영수 허광도 장연주 하정자
이상백 정숙자 김주희 손해식 백금옥 이우중 김재룡 이상근 이미영 김용진 이창훈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영미 이재현 김해원
윤희사 이복기 정성종 황정훈 이춘달 이상근 김다현 김재숙 왕인준 이용성 조원의 김필성 전평일 김영재 문상필 (주)동아기업
조정남 이경순 최연익 윤정애 이상훈 강효상 조필준 윤현순 진영천 김시달 백상호 김정규 이숙이 손윤기 최홍래 김소연 이미경
임화연 조필준 최유리 배정도 유상우 안미경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홍정숙 윤정수 임세종 한선희 공인배 조성진 박태순 백상개
발(주)땡길재 이호길 오경옥 정숙향 서도순 김인호 신창환 정창민 제성호 조성진 김양현 이연화 이승미 박정현 윤복연 김보열
주신옥 이영수 안규철 박종문 장형선 조성진 법장사 김성범 윤현식 노영도 이계숙 강외순 양미모 진순옥 김인수 제금자 노주현
조필준 김무립 이용권 김진규 안용호 한화조 정정순 박은정 이순복 문갑래 김옥순 정인숙 조원의 우태영 유은지 최시혁 박우찬
(주)청호건설 이향래 고난조 김석연 전부근 정해숙 김승선 구나운 주경선 황성옥 박인령 정유섭 허혜자 김옥화 윤상일 윤정자
최연경 (주)동명특수강 최효심 윤정숙 임상보 류해명 이영숙 박경자 박국원 박치훈 이재동 최인선 김철영 이무제 (유)에이치에
스관리 김민자 최문정 박미경 김영화 최원옥 서영문 이현숙 윤정향 김보열 홍순화 박옥림 공납이 김순찬 추상근 박수영 김진희
이지선

6월 성명숙 정영숙 이숙이 이상근 김다현 김소연 성명숙 이상훈 박종근 김선숙 이봉자 이혜경 박현숙 양수미 김용호 황정훈
김향숙 허혜자 방이호 김인수 강대균 이미경 강쌍범 남경남 김주희 손해식 백금옥 이우중 강대균 (주)동아기업 이충림 최홍래
윤정향 변재범 박정숙 한선희 이상백 정숙자 김해원 윤희사 이복기 정성종 곽선자 금중종합건설 정숙향 하부영 김석연 진순옥
김주애 정창민 이영미 조원의 김필성 전평일 김영재 문상필 백장훈 오경옥 청호건설(주) 최연익 김보열 이순복 홍은정 제금자
이용성 조원의 윤현순 진영천 김시달 백상호 강옥환 이계숙 박치훈 양미모 최연경 신창환 김순점 왕인준 강효상 조필준 최유리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배정도 유상우 안미경 진재분 윤복연 김정옥 박은정 안규철 전부근 박향진 박종문 공인배 조성진 박태순 백산개발(주) 맹길재 박정현 권종영 이영자 정정순 김민호 문갑래 강외순 김순화 예금이자 임화연 이동현, 백서운 김양현 이연화 이승미 노영도 홍은정 김보열 김옥화 이경순 이두래 예금이자 불명 김순화 노주현 박우진 법장사 김성범 윤현식 안운호 김주애 김보열 이향래 김인호 이영수 김재호 박준영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제성호 이태호 김무립 이용권 김진규 박우찬 박정숙 박국원 정지숙 손윤기 정미순 김철영 불여사 이용진 장형선 구나운 우태영 유은지 최시혁 정유섭 김진영 서영문 장영수 김형열 윤정애 홍순화 전제윤 이수미 이수미 윤정숙 주경선 황성옥 박인령 이지선 이충립 정정자 류석열 장원주 윤정자 서진호 최윤경 이수미 이수미 김민자 임상보 류해명 이영숙 구영숙 김순점 한학조 김수정 서도순 최인선 정정숙 심창한 (주)동명특수강 이용진 김순찬 최문정 박미경 정은영 김세일 박향진 배상림 이상근 윤정수 장원주 김순희 봉림사관음회 김옥순 정인숙 김희정 이대희 박수영 김영화 최상태 문경련 김연순 고난조 박정숙 백장흠 백상현 정해숙 박우진 이민자 성미란 왕한석 방만혁 차기훈 이혜숙 최인미 윤상일 임세종 김용호 추영식, 광민선 이무제 이태호 이혜경 정심아 광병대 서해인 박재홍 서양순 황종관 이재동 이창훈 진재분 김태형 최중용 (유)에이치에스관리 이승진 김종진 윤지희 예금이자 이상태 이춘달 이미영 허광도 김재숙 광선자 이희연 치마저고리 최윤경 황진두 최임숙 강연옥 이윤봉 김재룡 김말순 이현숙 김용진 성양원 권종영 하정자 황희석 이창식 김애숙 하현희 이재정 홍세표

7월 강옥환 한학조 김옥화 김민호 성양원 서진호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강효상 조성진 김필성 윤홍사 김시달 양수미 김희정 성미란 이영자 김보열 장영수 장원주 김순희 정정숙 이미경 공인배 조필준 윤현순 전평일 유상우 이우종 이민자 정심아 대각디앤씨(주) 서양순 김수정 김형열 정미순 김재호 한선희 임화연 조원의 최유리 진영천 맹길재 정성종 이혜경 김종진 최상태 김향숙 김석순 허광도 이영수 백장흠 정창민 제성호 조원의 박태순 배정도 이승미 문상필 이승진 최임숙 정영숙 배상림 이경순 김용진 이순복 박정숙 박종문 이용진 정인숙 김양현 백산개발(주) 윤현식 백상호 김애숙 하현희 박재홍 주신옥 박은정 김다현 윤정자 진재분 제금자 이수미 이태호 법장사 이연화 김진규 안미경 이봉자 이혜경 차기훈 문경련 손윤기 최홍래 박정숙 성명숙 김순화 이수미 김승선 김무립 김성범 최시혁 이호길 김주희 손해식 이상태 이춘달 이상근 방이호 진순옥 강대균 (주)동명특수강 노주현 구나운 우태영 유은지 박인령 박정현 김해원 윤홍사 김재룡 김말순 최인미 윤정수 김철영 김용호 김옥순 정인숙 윤정숙 주경선 황성옥 이영숙 노영도 김필성 전평일 황정훈 이상근 황종관 김인호 최인선 광선자 정해숙 김승선 김민자 임상보 류해명 정은영 안운호 윤현순 진영천 (주)동아기업 이숙이 김연순 최연의 장원주 권종영 이무제 전득곤 김순찬 최문정 박미경 김영화 박우찬 최유리 배정도 오경옥 이충립 고난조 김석연 이창훈 김주애 최중용 최윤경 김희정 추상근 박수영 김진희 강성진 박태순 이연화 금종종합건설 정숙향 양미모 김보열 김소연 홍은정 치마저고리 (유)에이치에스관리 이민자 이대희 왕한석 박수빈 정유섭 김양현 김성범 윤복연 (주)청호건설 이재동 최연경 임세종 박향진 황희석 공남이 이혜경 성미란 광병대 박서진 이지선 법장사 이용권 이계숙 김정옥 윤상일 안규철 변재범 대각디앤씨(주) 강쌍범 남경남 이승진 성심아 윤지희 허종락 구영숙 김무립 유은지 홍정숙 박치훈 주신옥 문갑래 김재숙 김태형 박종근 정숙자 황진두 김종진 이재정 방만혁 김세일 우태영 황성옥 정정자 이향래 서도순 이두래 홍순화 이희연 이영미 김진숙 김애숙 최임숙 박현숙 서해인 구나운 주경선 류해명 박국원 이현숙 윤정향 홍정숙 김인숙 하정자 이상백 이동현 이봉자 하현희 백금옥 이태현 윤정숙 임상보 박미경 김보열 정지숙 이미영 허해자 신창환 이상흠 이용성 정병하 김주희 이혜경 이복기 이윤봉 김민자 최문정 왕한석 서영문 정정순 하부영 윤정애 전부근 왕인준 장형선 박우진 김해원 손해식 김영재 홍세표 김순찬 추상근 삼보종합건설(주)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8월 강육환 배상림 김수정 허광도 최인선 홍은정 황숙희(10) 임화연 강연옥 이태현 구나운 우태영 류해명 최상태 문경련 이상근 윤정수 박정숙 백장흠 강현호(11) 제성호 이재정 이윤봉 윤정숙 주경선 박미경 박재홍 김향숙 김연순 방이호 임세중 진재분 불명(12) 장형선 백금옥 홍세표 김민자 임상보 박수영 차기훈 김보열 황종관 최홍래 윤정자 권종영 김혜숙 이용진 이복기 양수미 김순찬 최문정 왕한석 김재룡 이영자 최인미 김다현 성양원 김재호 김순화 이수미 김영재 이우중 김희정 추상근 삼보종합건설(株) 정영숙 이현숙 이미영 김보열 김소연 곽선자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수미 김시달 정성종 이민자 성미란 김은정 이상태 이충림 고난조 김인호 윤정애 강대균 (株)동명특수강 노주현 유상우 문상필 이해경 정십아 황정훈 이숙이 양미모 김석연 김순점 성명숙 김옥순 박정대(세종가구) 맹길재 백상호 이승진 김종진 (株)동아기업 김옥화 이경순 최연익 김재숙 김주애 정해숙 최윤경 이승미 안미경 이계동 최입숙 금중종합건설 정지숙 손윤기 이두래 김인수 대각디앤씨(株) 치마저고리 이창식 윤현식 이호길 김애숙 하현희 김순점 박치훈 박은정 최연경 이순복 박향진 최중용 이창식 최시혁 박정현 이봉자 손혜식 오경옥 김말순 윤정향 김용진 진순옥 김태형 이무제 정숙자 박인영 노영도 김주희 윤희사 윤복연 김정옥 주신옥 안규철 변재범 하정자 황희석 김선숙 이영숙 안운호 김해원 전평일 한학조 이상근 이계동 허해자 신창환 이상흠 박종근 이태호 정은영 박우찬 김필성 진영천 박국원 이춘달 윤상일 문갑래 전부근 이미경 강쌍범 강영자 김영화 강성진 윤현순 배정도 서영문 장영수 서도순 김순희 김설영 정창민 이상백 남경남 박수빈 정유섭 최유리 이연화 김보열 이향래 하부영 장연주 홍순화 한선희 이용성 정인숙 박서진 박경자 박태순 김성범 이계숙 정정순 김민호 정미순 서진호 제금자 이영미 박우진 허종락 이지선 김양현 이용권 정정자 정숙향 장원주 이창훈 정정숙 왕인준 강효상 곽병대 방만혁 구영숙 법장사 유은지 서양순 청호건설(株) 김형열 이영수 박정숙 박종문 공인배 윤지희 서혜인 김세일 김무렵 황성옥

9월 강육환 서영문 장영수 허광도 최인선 박정숙 정창민 임화연 정인숙 이영숙 박정현 김진영 김보열 김수정 김용진 윤정애 이순복 제금자 이용진 이태호 정은영 노영도 최상태 한학조 김보열 김형열 김소연 홍순화 김혜숙 장형선 정병하 김영화 안운호 김재룡 문경련 이상근 김다현 김순점 진순옥 왕인준 이수미 남경남 박수빈 박우찬 윤복연 배상림 이미영 방이호 정미순 김설영 김순화 이수미 박우진 박서진 강성진 박재홍 김향숙 최인미 서도순 이영수 강대균 박종문 노주현 김승선 허종락 정유섭 차기훈 이춘달 김연순 윤정수 장연주 홍은정 (株)동명특수강 제성호 곽병대 황숙희 이지선 이상태 이상근 황종관 최홍래 김순희 신창환 김옥순 공납이 윤지희 송미경 구영숙 정영숙 김말순 양미모 허해자 성양원 서진호 정해숙 김승선 강연옥 예금이자 김세일 황정훈 이숙이 고난조 김인호 이창훈 대각디앤씨(株)이무제 최윤경 이재정 방만혁 정종동 정숙향 손윤기 홍정숙 김석순 정정숙 최중용 박정대(세종가구) 백금옥 이태현 정원진 청호건설(株)이경순 김석연 예금이자 전부근 치마저고리 이창식 이복기 이윤봉 (株)동아기업 서양순 장원주 최연경 성명숙 박향진 황희석 이재현 김영재 홍세표 오경옥 김정옥 김민호 김보열 곽선자 김태형 박종근 조원의 김시달 양수미 홍정숙 박치훈 박은정 안규철 백장흠 이희연 강쌍범 조필준 유상우 이우중 금중종합건설 정정순 윤정향 문갑래 김주애 하정자 이상백 조원의 맹길재 정성종 이계숙 이향래 주신옥 이두래 변재범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영미 조성진 이승미 문상필 김용호 이현숙 최연익 박정숙 진재분 이상흠(이상흠이비인후과) 이용성 정숙자 윤현식 백상호 정정자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김옥화 하부영 임세종 김재호 이미경 강효상 김선숙 최시혁 안미경 박국원 정지숙 이재동 윤정자 권종영 한선희 공인배 백서운
이동현 박인령 이호길

10월 이영자 김보열 이미영 김민호 임세종 진재분 제금자 이수미 이해경 정심아 광병대 박수빈 박우찬 박태순 오종환 김진영
서영문 정지숙 허광도 정미순 강대균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수미 이승진 김종진 정진숙 박서진 강성진 김양현 이연화 강옥환
김보열 김연순 최홍래 이영수 권종영 (주)동명특수강 노주현 김애숙 최입숙 윤지희 허종락 정유섭 법장사 김성범 최상태 서양순
김수정 윤정수 성양원 성명숙 김옥순 강영화 이봉자 하현희 강연옥 황숙희 이지선 김무립 이용권 이상태 김향숙 황종관 김다현
이두래 김주애 정해숙 이창식 김주희 손해식 이재정 송미경 구영숙 우태영 유은지 김재룡 이춘달 이상근 김인호 최인선 박정숙
이무제 박정대(세종가구) 김해원 윤홍사 박현숙 박종섭 김세일 주경선 황성옥 정영숙 이상근 박은정 김용진 이순복 홍은정
치마저고리 이동현 김필성 전필영 백금옥 방만혁 구나운 임상보 류해명 차기훈 김말순 고난조 최연익 진순옥 대각디앤씨(주)
황희석 조성진 윤현순 진영천 이복기 서혜인 윤정숙 최문정 박수영 황정훈 이숙이 이경순 홍정숙 장연주 이충림 최중웅 조성진
최유리 배정도 김영재 이태현 김민자 이대희 왕한석 (주)동아기업 정숙향 손윤기 김석연 윤정자 박향진 박종근 박정대(세종가
구) 박태순 이연화 김시달 이윤봉 김순찬 성미란 삼보종합건설(주) 오경옥 청호건설(주) 윤정향 김보열 박정숙 김태형 강쌍범
최효심 김양현 김성범 유상우 홍세표 김희정 정심아 금중종합건설 정명화 주신옥 안규철 변재범 이희연 이상백 최효심 법장사
이용권 맹길재 양수미 이민자 김종진 윤복연 박치훈 하부영 최연경 신창환 하경자 이영미 최효심 김무립 유은지 이승미 이우종
이혜경 최입숙 박재홍 김정옥 양미모 장영수 김순희 이마트단체지원금 이용성 박우진 우태영 황성옥 윤현식 정성종 김애숙
하현희 이계숙 이영자 이재동 문갑래 전부근 왕인준 강효상 구나운 주경선 류해명 최시혁 문상필 이봉자 이해경 한학조 정정순
윤상일 허혜자 홍순화 이상흙(이상흙이비인후과) 공인배 윤정숙 임상보 박미경 박인령 백상호 김주희 손해식 박국원 김옥화
서도순 김순점 김철영 이미경 임화연 김민자 최문정 박수영 이영숙 이호길 김해원 윤홍사 정정자 최인미 장원주 이창훈 서진호
한선희 제성호 김순찬 추상근 왕한석 정은영 박정현 김필성 전필영 문경련 이현숙 김형열 윤정애 정정숙 정창민 장형선 김희정
이대희 삼보종합건설(주) 김영화 노영도 윤현순 진영천 배상림 이향래 방이호 김소연 김재호 박종문 이용진 이민자 성미란 김은정
김진희 안웅호 최유리 배정도

11월 강옥환 배상림 김수정 김형열 박정숙 진재분 김혜숙 이용진 이재정 황숙희 박경자 법장사 유은지 김진영 문경련 허혜자
김석연 성양원 성명숙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수미 박현숙 송미경 이지선 김무립 황성옥 최상태 김향숙 이상근 김보열 정미순
박정숙 (주)동명특수강 이수미 백금옥 박종섭 구영숙 우태영 류해명 정영숙 서양숙 이미영 장원주 김순희 김주애 김옥순 노주현
이복기 서혜인 김세일 주경선 박미경 이상태 이영자 최인미 주신옥 김소연 홍은정 정해숙 정인숙 김영재 이태현 구나운 임상보
박수영 김재룡 이충림 황종관 문갑래 이영수 서진호 이무제 이태호 김시달 이윤봉 윤정숙 최문정 왕한석 차기훈 이춘달 김연순
김민호 윤정애 대각디앤씨(주) 최중웅(법성) 김승선 유상우 홍세표 김민자 추상근 삼보종합건설(주) 박재홍 이상근 윤정향 안규철
최인선 정정숙 치마저고리 (유)에이치에스관리 맹길재 양수미 김순찬 성미란 김은정 황정훈 박치훈 하부영 허광도 이순복
박향진 황희석 이재현 이승미 이우종 김희정 정심아 허극도 (주)동아기업 김말순 양미모 윤정수 진순옥 김순화 박종근 최윤경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윤현식 정성종 이민자 김종진 금중종합건설 김정옥 이정순 방이호 변재범 김태형 강쌍범 이창식 김진규 문상필 김계동 최입숙
오경옥 이숙이 고난조 최연경 신창환 하정자 이상백 김선숙 최시혁 백상호 김애숙 하현희 이계숙 정숙향 손윤기 최연익 홍순화
이상흠 이영미 공납이 박인령 안미경 이봉자 이해경 윤복연 청호건설(주) 윤상일 김다현 김철영 이미경 이용성 박정대 이영숙
이호길 김주희 손해식 정정자 정지숙 이재동 이두래 김범수 한선희 예금결산 이태호 정은영 박정현 김해원 운흥사 서영문
김옥화 김용진 이창훈 전부근 정창민 강효상 박우진 김영화 노영도 김필성 전평일 박국원 이향래 박은정 임세종 김석순 제금자
공인배 광병대 김진희 안응호 윤현순 진영천 김보열 이현숙 서도순 장연주 김재호 왕인준 임화연 정진숙 박수빈 박우찬 최유리
배정도 한학조 정정순 김인호 조필준 권종영 박종문 제성호 윤지희 박서진 강성진 박태순 이연화 김보열 장영수 최홍래 윤정자
강대균 김순화 장형선 강연옥 허종락 정유섭 김양현 김성범

12월 강옥환 서영문 장영수 허광도 이순복 정정숙 대각디앤씨(주) 치마저고리 김선숙 김시달 홍세표 김진영 김보열 김수정
이재동 김철영 김재호 김태형 황희석 강영숙 유상우 양수미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정정자 황종관 윤상일 윤정자 이충림
이혁연 박종근 전득근 맹길재 이우총 최상태 이영자 김연순 서도순 박정숙 김주애 하정자 강쌍범 남경남 이승미 정성종
김순점 서양순 이상근 윤정수 이영수 박정숙 박옥림 이상백 정병하 윤현식 백상호 송정훈 김향숙 이미영 최홍래 조필준
권종영 이상흠 이영미 공납이 최시혁 안미경 이상태 문경련 최인미 김다현 진순옥 성명숙 왕인준 이용성 박우진 박인령
최숙자 윤복연 배상림 이현숙 방이호 변재범 강대균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장형성 이태호 이영숙 이호길 차기훈 이상근
하부영 허혜자 성양원 홍은정 이미경 강효상 박정대(세종가구) 김영화 박정현 정영숙 이춘달 손윤기 김인호 임세종 진재분
한선희 공인배 남경남 박수빈 노영도 박재홍 이숙이 윤정향 김용진 김소연 파머스마켓(고성읍) 정창민 임화연 광병대 박서
진 안응호 김재룡 김말순 김형열 김석연 이창훈 김병천(교사불자회) 박종문 제성호 정진숙 허종락 박우찬 황정훈 정숙향 최연익
김보열 홍순화 고성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금자 이용진 박종태 황숙희 강성진 (주)동아기업 청호건설(주) 주신옥 안규철 윤정애
김용곤(캐논) 김순화 이수미 윤지희 송미경 정유섭 홍정숙 박치훈 장원주 문갑래 김순희 진성스님(옥천사) 불교와여행을사랑
하는사람들 이수미 강연옥 박종섭 박경자 금중종합건설 김정옥 이정순 최연경 정미순 하창식 (주)동명특수강 노주현 이재정
예금이자 이지선 오경옥 이향래 고난조 이두래 장연주 동고성농업협동조합 김옥순 김승선 박현숙 방만혁 구영숙 이계숙
정정순 양미모 김석순 신창환 이상진(개천면장) 정해숙 최윤경 백금옥 서혜인 김세일 한학조 김옥화 김민호 예금이자 서진호
김순점 이무제 (유)에이치에스관리 이복기 이태현 박국원 정지숙 박은정 최인선 전부근 박향진 최종웅(법성) 이창식 김영재
이윤봉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1월 서지영 노지오 노혜원 안병수 현대증권 조재경 이태수 안성훈 김영완 남동국 박연찬 서상희 권현옥 코벤아이러브 김점식 하복순 김종근 김경래 최승희 최진호 한행주 윤지여 최돌선 강학이 한성기계(株) 교정희 정숙이 조윤희 조성해 손광옥 배청자 최정운 대한불교조계종 전정이 정순자 추광식 최규현 이지원 양정화 이정철 박종선 강홍석 황현숙 조경훈 후원금 결산이자 강현중 이영빈 박계라 민춘식 김가희 김정수 정남주

2월 김해원 최홍석 조성희 서지영 노혜원 노지오 안병수 조재경 이태수 강학이 김영완 박병수 박연찬 서상희 권현옥 신진자 코벤아이러브 김점식 하복순 노동철 진수혁 방양강 김종근 최승희 최진호 김경래 박병수 최돌선 강학이 윤지여 한행주 최규현 정숙이 최정운 조성해 전정이 손광옥 조윤희 정순자 한성기계(株) 이지원 배청자 대한불교조계종 추광식 양정화 이정철 천성봉 농산물품질원 연화교직원봉사회 박종선 창원교도소불심회 강현중 이영빈 박계라 최홍석 김가희 김정수

3월 황현숙 조성희 김해원 최홍석 서지영 후원금 노혜원 노지오 안병수 노동철 조재경 이태수 창원교도소 박연찬 서상희 권현옥 김점식 하복순 코벤아이러브 조현수 조경훈 서병찬 서병훈 김종근 최승희 최진호 김경래 박병수 우경남 정아라 윤지여 한행주 강학이 최돌선 박종선 김경숙 손광옥 조윤희 조성해 정숙이 최정운 전정이 정순자 오혜영 이지원 배청자 대한불교조계종 추광식 양정화 최규현 이정철 창원교도소 황현숙 후원금 신민기 조성희 김해원 최홍석 김영완 조경훈 강현중 이영빈 박계라 정남주 최홍석 김가희 김정수 정남주 최홍석

4월 서지영 노지오 노혜원 안병수 노동철 조재경 이태수 진주민들레로타리클럽 박연찬 서상희 코벤아이러브 하복순 김점식 김종근 최승희 최진호 진주민들레로타리클럽 김경래 최돌선 강학이 연다운 한행주 윤지여 한성기계(株) 박병수 창원교도소 최일규 신민기 배청자 조성해 양정화 손광옥 조윤희 정숙이 최정운 대한불교조계종 전정이 추광식 이정철 정순자 오혜영 최규현 이지원 김해원 최홍석 황현숙 조성희 후원금 황영호 강현중 이영빈 박계라 김정수 남수경(김종길) 정남주 최홍석

5월 이태수 조경훈 서지영 노동철 안병수 노지오 노혜원 봉림사관음회 불여사 조재경 김점식 서상희 박연찬 권현옥 코벤아이러브 하복순 박종선 동고성농협 김경래 최승희 최진호 김영완 김종근 윤지여 박병수 한행주 최돌선 강학이 연다운 한성기계(株) 최규현 창원교도소 손광옥 조윤희 배청자 정숙이 조성해 최정운 대한불교조계종 전정이 추광식 정순자 오혜영 신민기 이지원 양정화 최일규 박상훈 대한지적공사(고성군지점) 황영호 강현중 이영빈 박계라 김정수 결산이자 정남주

6월 황현숙 최홍석 양동원 조성희 김해원 서지영 조경훈 후원금 노혜원 노지오 남수경(김종길) 조재경 노동철 안병수 이태수 박연찬 서상희 권현옥 김점식 코벤아이러브 하복순 김종근 최승희 최진호 김경래 윤지여 한행주 최돌선 강학이 한성기계(株) 연다운 창원교도소 손광옥 조윤희 조성해 전정이 정숙이 최정운 정순자 오혜영 박병수 이지원 배청자 대한불교조계종 추광식 박효주 예금이자 양정화 최규현 이정철 신민기 박종선 최홍석 조경훈 황현숙 김해원 조성희 후원금 황영호 강현중 이영빈 박계라 결산이자 최홍석 김정수 남수경(김종길) 정남주 최홍석

7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안병수 노지오 노혜원 대한불교(교성) 노동철 최정화 박영훈 이태수 김영완 박연찬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코벤아이러브 김점식 김종근 최진호 최승희 김경래 stx복지재단 한행주 연다운 강학이 윤지여 (株)한성기계 최돌선 최일규 교정희 한화테크윈2 신민기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양정화 추광식 조윤희 이정철 대한불교조계종 정숙이 손광옥 전정이 최정운 오혜영 이지원 박영훈 박종선 조경훈 황현숙 후원금(김문주) 조성희 김해원 최홍석 박병수 남경수 김정수 정남주 최홍석 남수경 이동훈(창원정산로타리클럽) 강현중 이영빈 박계라 일본국제교류회 가고파새마을금고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

8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안병수 이태수 노동철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박연찬 코벤아이러브 김점식 노지오 노혜원 최진호 최승희 김경례 윤지여 한행주 연다는 강학이 한성기계(주) 최돌선 이해영 한화테크윈2 최일규 김종근 정순자 조성해 최윤희 최일규 정숙이 손광옥 전정이 최정운 오혜영 이지원 창원교도소 배청자 추광식 대한불교조계종 박병수 신민기 봉림사관음회(창원) 박종선 양정화 이정철 박수영 박영훈 조성희 조경훈 김해원 황현숙 후원금(김문주) 최홍석 황영호 강현중 이영빈 박제라 김정수 정남주 최홍석

9월 김영완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안병수 노지오 노혜원 노동철 이태수 박연찬 강복희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코벤아이러브 김점식 이진후 김종근 최승희 김경례 윤지여 박병수 최진호 한행주 연다는 강학이 (주)한성기계 최돌선 한화테크윈2 이해영 창원교도소 정순자 조성해 조윤희 최일규 정숙이 전정이 최정운 신민기 오혜영 이지원 김영완 조성희 배청자 양정화 박효주 추광식 김해원 이정철 황현숙 후원금(김문주) 최홍석 대한불교조계종 김정수 정남주 최홍석 황영호 강현중 이영빈 삼정자초등학교 박제라

10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안병수 노지오 노혜원 노동철 박영훈 이태수 조경훈 박종선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박연찬 코벤아이러브 삼정자학부모회 이진후 주양호 김점식 김종근 김경례 최진호 한행주 최승희 윤지여 연다는 강학이 (주)한성기계 최돌선 박병수 이해영 권재섭(진주동방치과) 창원교도소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박효주 추광식 조윤희 최일규 대한불교조계종 정숙이 전정이 최정운 신민기 오혜영 이지원 채창환 양정화 이정철 한화테크윈2 박영훈 조경훈 황현숙 후원금(김문주) 황영호 강현중 박민서 박제라 허영남 김정수 정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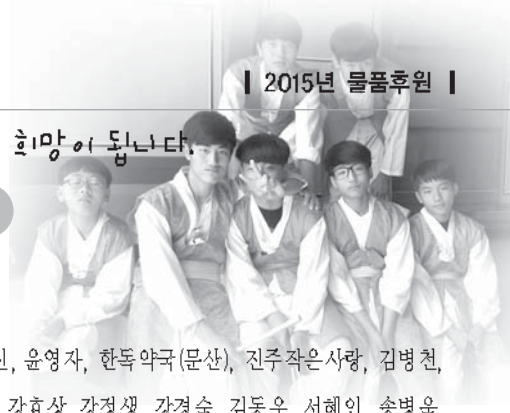
11월 조성희 조재경 양동원 김해원 서지영 안병수 최홍석 노지오 노혜원 이태수 노동철 김영완 박연찬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코벤아이러브 이진후 김점식 박종선 김종근 최진호 최승희 김경례 윤지여 한행주 연다는 강학이 (주)한성기계 이해영 박병수 창원교도소 봉림사관음회(창원) 정순자 한화테크윈2 조성해 조윤희 최일규 정숙이 전정이 최정운 신민기 오혜영 채창환 배청자 박효주 추광식 대한불교조계종 이지원 양정화 이정철 박봉남 박영훈 조성희 김해원 황현숙 후원금(김문주) 최홍석 최홍석 김정수 결산자 정남주 최홍석 황영호 강현중 이영빈 박제라 허영남

12월 조재경 조경훈 양동원 서지영 안병수 노동철 이태수 김영완 이은우 박연찬 서상희 하복순 코벤아이러브 김점식 이진후 김종근 최진호 최승희 김경례 두산 함께가는길 윤지여 윤영란 한행주 연다는 강학이 한성기계(주) 최돌선 한화테크윈2 이해영 박봉남 최원일 최필여 최덕순 조필제 조민경 조인수 박병수 창원교도소 노지오 노혜원 신민기 예금이자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양정화 박효주 추광식 조윤희 이정철 최일규 정숙이 대한불교조계종 전정이 최정운 오혜영 이지원 채창환 박영훈 봉림사관음회 조경훈 해피빈 황현숙 후원금 서연천사 조성희 김해원 최홍석 김정수 정남주 최홍석 황영호 강현중 삼정자초등학교 이영빈 박제라 허영남 창원정산로타리클럽 예금이자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



1월

보리수회(창원), 김선일(일광전기), 윤수영, 경남아동연합회, 짝연회관, 이경진, 윤영자, 한독약국(문산), 진주작은사랑, 김병천, 정선옥, 권영숙(영오), 연화화·금강화, 배용일(동균할머니), 최관경, 김현주, 강효상, 강정생, 강경숙, 김동우, 서혜인, 송병욱, 박향진, 동명한의원, 강숙이, 손금옥, 현대자동차(고성지점), 김복희, 서진상사, 정승우, 경남사회복지사회, 김영강지인, 내원사(고성), 우산반점(고성), 강철인, 민형욱, 김명자, 더큰병원(창원), 김보광화(김한규), 선재동자원, 구태오·최혜순(보련화), 박효주, 진주농산물(26번), 최명희·염용하, 손현우, 내원사(고성)

2월

불여사, 신우회(진주), 보리수회(창원), 이한솔, 정토만일봉사회, 강복희, 배용일(동균할머니), 두산(함께가는길), 공동모금회, 배일하, 동명한의원, 박정현(두산중공업), 김규리, 은덕암(고성), 더큰병원(창원), 윤덕점외(락락봉사회), 강철인, 경남도청, 경남도청(도시계획과), 김정란, 대한한돈협회, 강숙이, 손금옥, 김지현(이규원), 한독약국(문산), 개천면사무소, 최명희·염용하, 고성성심병원, 윤영자, 장미라, 새희망씨앗, 한우협회, 최상숙·이우종, 최을림, 고성캐논, 강경숙, 김동우, 고성군의회, 외환은행(진주지점), 차인희(고성), 불심회(창원교도소), 파머스마켓(고성), 삼성테크원, 권현옥산부인과(진주), 생활선원(부산), 고성드림스타트, 고성(거류면)의명, 월동마을, 최관경, 이영빈, 이호승지인, 김지현(이규원), 윤정남, 박기태, 정은희, 신한은행

3월

선광사(부산), 보리수회(창원), 김영호(삼우실업), 김보광화(김한규), 이용하, 강송훈, 김동우, 현대자동차(고성지점), 고성(거류면)의명, 정서윤, 강숙이, 손금옥, 소원성취사(울산), 윤덕점외(락락봉사회), 영농식육점(사천), 동명한의원, 문병식, 주유사(사천), 최낙구, 연화사(통영), 윤영자, 권영숙(영오), 김장호, 한독약국(문산), 푸드뱅크, 진주작은사랑, 김규리, 고성군청(주민생활과), 김동우, 최명희·염용하, 청련암, 경남아동연합회, 임태섭, 정토만일봉사회, 황정미, 우산반점(고성), 강철인, 안인준, 유평농장(송길동), 더큰병원(창원), 김두선, 아이꿈터(부산북부점), 구태오·최혜순(보련화), 강복희

4월

김보광화(김한규), 최은기, 백준호(하린영), 신우회(진주), 보리수회(창원), 한독약국(문산), 동명한의원, 짝이마을, 문병식, 박영희, 윤영자, 강숙이, 손금옥, 정은희, 푸드뱅크, 강철인, 강복희, 허광도, 배용일, 유평농장(송길동), 고성서울아동병원, 최관경, 김영강지인, 더큰병원(창원), 정서윤, 윤정남, 박영재(함안무학사), 영농식육점(사천), 안인준, 창원문성대(부동산학과), 박민석, 삼별회, 영가구마트(통영), 스님(의명), 최시혁, 서유미, 고성군청, 우산반점(고성), 파머스마켓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

5월

배용일, 김보광화(김한규), 최은경, 보리수회(창원), 최을림, 르네시페(미라클), 우동철, 신은철, 서혜인, (사)환경과사람들, 두산중공업, 장미애, 박영희, 개천면체육회, 고성서울아동병원, 현대자동차(고성지점), 김명자, 동명한의원, 최보연, 김준엽(나눔의향기), 강철인, 최관경, 윤영자, 한독약국(문산), 강경숙, 더큰병원(창원), 윤종선지인, 적벽돌(배둔), 이호승지인, 박영재(함안무학사), 푸드뱅크, 문은순, 새희망씨앗, 이명자, 최상숙·이우종, 박효주, 김갑연, 선재동자원, 원장님지인, 우병옥(영오), 우산반점(고성), 구태오·최혜순(보련회), 김명자

6월

정토만일봉사회, 스님(익명), 서영순(연화집), 동명한의원, 한독약국(문산), 서영희(고성아이존빌부동산), 나눔의향기, 신우회(진주), 보리수회(창원), 강숙이, 손금옥, 우진인더스트리, 경남아동연합회, 윤영자, 우성하, 강철인, 김갑연, 안인준, 푸드뱅크, 유평농장(송길동), 황홍점, 열린약국(고성), 우산반점(고성), 최관경, 이랜드복지재단, 신은철, 윤경남, 홍륜사(고덕스님), KT고성지점, 황재균지인

7월

고성균청(주민생활과), 김보광화(김한규), 박정민(나눔의향기), 보리수회(창원), 동명한의원, 오순이, 옥천사, 윤영자, 푸드뱅크, 한독약국(문산), 배용일, 최을림, 황홍점, 강숙이, 손금옥, 윤덕점외(락락봉사회), 불여사, 강철인, 청련암, 신은철, 윤외수, 최운경, 백운암, 최관경

8월

신우회(진주), 보리수회(창원), 푸드뱅크, 옥천사, 허민영, 박혜정(반야도원), 내원암(통영), 진주작은사랑, 윤덕점외(락락봉사회), 한독약국(문산), 윤영자, 강숙이, 손금옥, 파머스마켓, 선재동자원, 김은정, 우산반점(고성), 동명한의원, 안인준, 강경숙, 최임수, 강철인, 두산(함께가는길), 봉림사관음회(창원), 윤외수, 정토만일봉사회, 윤경남, 송병옥, 구태오·최혜순(보련회), 최관경

9월

현대자동차(고성지점), 신은철, 고성캐논, 최명희·염용하, 황정미, 장피엘(울산), 동명한의원, 아이꿈터(부산북부점), 불여사, 보리수회(창원), 전택상, 윤영자, 고성경찰서, 김보광화(김한규), 백운암, 강숙이, 손금옥, 경남도청, 란네일, 두산(함께가는길), 허민영, 배희승, 푸드뱅크, 김성용, 윤덕점외(락락봉사회), 강철인, 최대석, 경남도청(예산담당관실), 경남은행(창원마산), 경남도청(농산물유통과), 임정진, 삼정자초등학교, 최을림, 개천면사무소, 고성성심병원, 김보광화(김한규), 고성군의회, 서영희(고성아이존빌부동산), 구몬학습, 권영숙(영오), 파머스마켓, 김태경, 생활선원(부산), 불신회(창원교도소), 정서윤, 장미라, 하만희, 이화정, 김은정, 최연종, 박용환, 안인준, 김기섭, 이한솔, 백소반(고성), 최관경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

10월

윤정남, 동명한의원, 적민스님, 김영주(성곡), 최을림, 신우희(진주), 보리수회(창원), 경상남도최고장인회, 서성호(김나홍), 고성군청(주민생활과), 내원암(통영), 백소반(고성), 새희망씨앗, 김홍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윤영자, 강태규, 윤덕점외(락락봉사회), 우산반점(고성), 강철인, 장인석공예, 고성군공무원봉사회, 우동철, 정점선(창원), 박영재(함안무학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정인스님, 기독교아원(진주), 대한한돈협회, 강숙이, 손금옥, 박영희, 봉림사관음회(창원), 광형석, 조미자, JTS(정토회), 영농식육점(사천), 정토만일봉사회, 박진수, 김성용, 김미정·윤광호, 고룡이, 최관경

11월

보리수회(창원), 강호림(강성중), 안인준, 배용일(동균할머니), 박영희, 윤영자, 박효주, 상상발룬티어(KT&G), 개천면사무소, 윤덕점외(락락봉사회), 신은철, 강철인, 서성호(김나홍), 최관경, 정토만일봉사회, 청신희(고성), 진주작은사랑, 두산(함께가는길), 손금옥, 박영재(함안무학사), 이상길(좌이마을), 최상숙·이우종(동아기업), 강숙이, 푸드뱅크, 김병홍, 구태오·최혜순(보련회), 동명한의원, 최은숙, 최임수, 영농식육점(사천), 윤외수, 송병옥, 우산반점(고성), 내원암(통영)

12월

김명자, 고성서울아동병원, 강경숙, 창원벽산아파트(부녀회), 이용하, 김태년(서울), 강철인, 동명한의원, 신우희(진주), 양경애, 배용일(동균할머니), 박효주, 윤외수, 경남아동연합회,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최규원(부산), 공효주, 김기오, 엄윤주·이광희, 윤덕점외(락락봉사회), 다솜회, 한화테크원2, 장나영, 아람나무(부산), 보리수회(창원), 보현스님, 장나영, 강숙이, 손금옥, 어린이재단, 김명자, 보각스님, 진불청, 영천중학교, 정토만일봉사회, 좌연회관, 우동철, 새희망씨앗, 최관경, 민들레로타리클럽(진주), 고성익명(거류면), 황정미, 신은철, 박이민치과(매둔), 교사인터넷카페, 천호정갈비(매둔), 서영희(고성아이존빌부동산), 김기라, 윤정남, 공동모금회, 서혜인, 한국휴게음식업(진주지부), 김지현(이규원), 봉림사관음회(창원), 불곡사(차밭회), 정영환, 영농식육점(사천), 강용구(신우희), 황경선, 우산반점(고성), 광동수, 보현스님



♥누락된 분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다음 소식지 발간에 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아동결연후원

강승규 : 김백천(퇴소)

강옥환 : 김인왕, 김인제제, 김인시후, 오슬기, 김종수

구나윤 : 이대웅

권효섭 : 이택겸, 이청란

김문래 : 석동인

김민규 : 최민서, 유유진, 정재우

김영진 : 박의렬

김예지 : 박정민

김외경 : 박민승, 신경이(퇴소)

김은정 : 유관중

김인순 : 박경주(퇴소)

김종복(금봉스님) : 박지환

김치원 : 김원영

김홍구 : 박정민, 문강희

노동희(삼별희) : 양진우(퇴소), 김 신, 김인왕, 석준영

대구청수사 : 문강희

박기태 : 박시우

박명주 : 김효림(퇴소)

박미선 : 유관중, 석준영, 김영찬

박미혜 : 유유진, 송민경

박순자 : 박사훈, 박지우

배수빈 : 이여래

서영희 : 유승영

석병길 : 석동인

손성욱 : 박희민(퇴소)

송정훈 : 배희승(퇴소), 양진우(퇴소), 이명진(퇴소), 오슬기, 김백천(퇴소), 신경이(퇴소),

신민규(퇴소), 이수현(퇴소), 한승민(퇴소), 김동천(퇴소), 신영주(퇴소), 임정재,

김효림(퇴소), 김희태, 오수정, 박희민(퇴소), 김성현, 박경주(퇴소), 어득수(퇴소),

황재균(퇴소), 이은미(퇴소), 김종수, 박사훈, 이상민, 석원진, 박의렬, 유관중, 이대웅, 김태현,

박철휘, 박지우, 전주영, 최민서, 김 신, 박정민, 박지환, 유승영, 김철영, 이택겸, 이호승, 석동인,

박유영, 김원영, 전서영, 김선영, 송우일, 박민승, 이청란, 김다솜, 전영주, 김영강, 김인왕,

유유진, 김인제제, 문강희, 이여래, 김인시후, 김영찬, 석준영, 최준혁, 박시우, 송민경, 정재우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아동결연후원

신은철 : 박지환

신태진 : 석준영, 김인왕

신태한(일신스님) : 신민규(퇴소), 김인제제, 송민경

안인준 : 김철영

안정애 : 이은미(퇴소)

우동철 : 김인시후

이숙진 : 석준영

이영실 : 박철휘

이화옥 : 김철영, 김 신

정유섭 : 황재균(퇴소)

조규열 : 이호승, 전주영

하린영 : 박지환

하지우 : 김효림(퇴소), 박유영, 박지환, 김태현

허민영 : 김종수

황경수 : 신민규(퇴소)

후원금(김문주) : 박의렬

(주)미성 : 김선영, 송우일, 이여래, 최준혁, 박시우

공동모금회 : 김원영

동그라미회 : 이명진(퇴소), 김종수, 석원진, 이대웅, 김인제제

어린이재단 : 박사훈, 석동인, 황재균(퇴소)

현대자동차(고성지점) : 유유진

호성기계 : 박사훈, 박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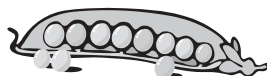
stx복지재단 : 오슬기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1. 해피빈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 해피빈이란?

해피빈은 3,500만 네티즌과 공익 단체, 후원파트너가 함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 해피로그란?

해피빈에서 지원하는 공익 단체들의 블로그입니다.

♡ 콩이란?

콩은 온라인 기부아이템을 뜻하며,
콩 1개 =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콩 모으는 방법은?

첫째, 네이버에서 콩메일을 쓰세요. 매일 한 통으로 콩 1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 지식iN 답변하기에 참여하고 콩을 모읍니다.

셋째, 네이버와 해피빈 곳곳에 있는 콩 배너를 클릭하고 콩을 받습니다.

넷째, 매달 15일 해피빈 기부day에 참여하고 콩을 받습니다.

다섯, 카드 포인트(BC카드 포인트, KB카드 포인트)를 콩으로 바꿉니다.
(100포인트 = 콩 1개)

여섯, 소액이라도 내가 가진 현금, 네이버 코인으로 콩을 충전합니다.
(100원 = 콩 1개)

♡ 참여 방법은?

첫째, 콩 모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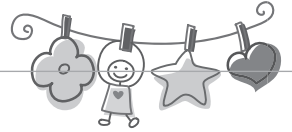
네이버(www.naver.com) 로그인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 모으기(자신이 보유한 콩에 대한 정보는 MY 해피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콩 기부하기

보리수동산2010 가기 (해피빈 검색창에서 '보리수동산' 검색) ... 보리수동산 2010 해피로그 ...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기부하기' 클릭

보리수동산 후원금은 여러 가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어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모두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해피빈에서 소득 공제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물받은 콩을 기부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충전콩을 선물하신 분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후원캠페인을 통해 받은 콩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2. 이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 시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희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마트에서 필요하신 물품도 구매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보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랍니다. ^^

♡ 이마트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 방법

첫째, 이마트 엘리베이터 옆에 배치된 부인적립기에 갑니다.

둘째, 화면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 '보리수동산 지정번호(진주:239, 마산:15)' 클릭

셋째, 화면 아래 바코드인지 면에 영수증 맨 끝에 있는 바코드를 갖다 대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시면 끝~!

지점명	기관명	지정번호	연락처
마산 이마트	정토만일회	005	055-711-1234
진주 이마트	보리수동산	239	055-749-1234

♡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깜박하고 잊으셨을 경우, 경남 고성군 옥천사내 청련암이나 보리수동산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 분기 별로 영수증으로 모아서 마산과 진주에 있는 이마트에 적립해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정토만일봉사회

회장 강미석

638-980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화 : (055) 672-0078 팩스 : (055) 672-1308

사랑과 꿈을 나르는 보리수회

회장 변점용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45

휴대전화 : 010-9326-0438

(주)동아기업 대표 이우종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23 ☎055-343-4900	변재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1호 영창빌딩 2층 ☎055-264-0390~1	BK건설주식회사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전문소방 대표이사 이충희 경남 창원시 명서동 104-1 KT서창원지점 4층 ☎055-237-7801~3
(유)대보 대표 박문순 경남 마산시 봉암동 376-6 ☎256-0733	서진호 의원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611-202 ☎673-1977	이상흠이비인후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71-4번지 자신빌딩 2층 ☎674-7933
이일수 (순환기내과 과장/전문의 의학박사)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270-1253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상남도 본부 고성군지사 ☎673-3539	(주)두산중공업 함께가는길·법우회 봉사단체
반성주유소 하창식 진주시 미반성면 가산리 477번지 ☎758-8817, 016-586-8817	株式會社日光電氣建設 사장 김선일 진주시 상평동 203-3번지 ☎755-7766, 011-583-6632	권현옥 산부인과 경남 진주시 신안동 582-1 경남은행 2층 ☎055-743-7567
the큰병원 원장 김경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0(명서동) ☎055-2700-8000	Beautiplex 뷰티플렉스 대표 강숙이 경남 마산시 월남동 5가 4-8번지 ☎055-245-8743	국제로타리3590지구 진주민들레로타리클럽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화방복지원 화방동산 원 장 자운스님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81-35 ☎055-863-2286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 노인전문요양원 원 장 최 분 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 ☎055-329-1733
내원정사 반야원 원 장 수안스님 경남 거제시 동부면 울포로 555-20 ☎055-632-1854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복지관 관 장 곽 인 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4-3 ☎055-221-8445
창원 성주사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원 정스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하이페르상가 14층 ☎055-266-8155	사회복지법인 연꽃 연꽃노인요양원 일 여스님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983-17 ☎055-964-5577
사회복지법인 능원복지재단 효능원 원 장 이 선 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38 ☎055-342-4443	사회복지법인 만월 만월노인요양원 여 진스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길 212 ☎055-648-1186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최 인 용 경남 거제시 양정길 45 ☎055-636-030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창군 삶의쉼터 관 장 일광스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 ☎055-945-2014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 원 장 서 화 영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 1길 17 ☎055-381-2005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락락봉사회 회원일동	진주불교청년회	삼 별 회 회 장 서 종 민 ☎010-3873-0109	아람나무 회 장 오 두 환 ☎010-3877-8711
가람토목설계사무소 윤 외 수 경남 고성군 성내로 131, 2층 ☎010-9337-2112	개 천 된 장 김향숙, 탁동열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면리 518 E-mail: gddi@naver.com ☎055-672-5459, 011-9332-3500	(주) 동명특수강 대표 이 성 갑 경남 진주시 상평동 158-20 ☎055-753-8822~3, 762-3344~5 취급품목: 탄소강, 합금강, 공구강, 마한봉	국제로타리3720지구 마산3지역 마산내서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3720지구 창원정상로타리클럽	진주작은사랑 인터넷동호회 daum.net/love4i 봉사단체	학우문구센타 (창원점) 대표 노 동 휘 경남 창원시 사파동 119-12 ☎267-9799	프로스팩스 박 상 범 김해시 안동 360-1 국제상사물류센타 ☎010-2551-6024
(주)현대자동차 (고성지점) 지점장 조 현 복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53 ☎055-674-7203~5	강 원 물 류 대표 노주현	동그라미회 회 장 김 덕 열 ☎010-3578-9624	옥 천 사 진성스님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672-0100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일동	천사미용봉사단 회원일동	(주)세창악기 대표이사 최 호 진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1030-1번지 Tel 055-271-6881~4, Fax 055-271-4186	보련회 중식봉사단체 회원일동
변호사 손양곤 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1 ☎055-762-8866	국제로타리클럽 동부로타리클럽 경남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 76 Tel 055-673-5064	동 명 한 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980-19번지 ☎031-732-0772	경상대학교 아이멘토링 학습봉사
자동차/화재/자금대출/연금/연금  LG화재 도동영업소 대리점 대표 김 점 연 경남 진주시 평안동 166구, 나로리(여식장3층) ☎747-8474, 8475	파머스마켓 점장 허 종 균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76 ☎055-673-8912	 황토떡방앗간 이 화 옥 경남 창원시 대동항로방 상가지하 104호 ☎264-9490, 267-8521, 019-271-9490	운 흥 사 성조스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442 ☎055-835-8656
국제 로타리3720지구 창원성산로타리클럽	 韓國精密器械株式會社 대표이사 하 종 식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47-5-4 ☎582-7871~5, 582-2153~5	문 수 암 이암스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34 번지 ☎672-8078	KEB  진주의환은행 경남 진주시 동성동 5-7번지 ☎055-743-1015
장수한의원 (구)정수당전제 원 장 김 봉 근 마산시 회원2동 578-13번지 ☎248-1997, 248-0855	호전종합건설 토목시설물 건설업 대 표 류 주 열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973-5 ☎055-674-0294/010-9512-4717		



보 현 사 월전스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산-2번지 ☎673-1192	봉 립 사 운남스님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39-9 ☎237-2266	불 곡 사 도홍스님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 ☎282-7402	세 원 암 천우스님 경남 마산시 예곡동 산42-1(불영산) ☎055-221-7730
성 주 사 원종스님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절길19 ☎055-262-0108	여 여 정 사 정여스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355-9290	선 광 사 성문스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1동 산8-32번지 ☎051-302-5657	(주)한성기계 이사 우동철 경남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79번길 ☎055-755-7722
함안 무학사 학봉스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산 50 ☎055-583-2113	창원봉림사관음회 회장 정 경 애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39-9 ☎010-2881-3585	칠 불 사 도웅스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883-1889	고성 우산반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8번지 ☎055-672-8813
화 방 사 종호스님 경남 고현군 대곡리 1448번지 ☎863-5011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혜근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번지 ☎744-1321	연 화 사 도법스님 경남 통영시 미수2동 44-1 ☎645-6683	천지선원 보운스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742-0511
사천달마사 해일스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외리 172 ☎852-3355	정 인 사 원행스님 경남 마산시 양덕1동 41-2 ☎256-5450	미 래 사 종필스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915 ☎645-5324	법 료 사 경남 통영시 태평동 368-1 ☎645-5430
한국제강 대표 하성식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582-6800	신우회 특식 봉사회원 일동 ☎010-7440-7900	마산교도소 불심회 회원 일동	부 산 생활선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1049-2번지 ☎051-852-009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외외리 331-4 ☎055-674-6050	진주안경원 부산정보대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대표 양정훈 ☎055-753-9555	창원삼정자초등학교 교장 광 동 국 경남 창원시 삼정자동 484-1 ☎055-264-2362	연화 교사 불자회 회장 최명림
과수사랑회 교육봉사단체 회장 오원숙님의 회원일동	한국산업 경남 창원시 상남동 23-7번지 토토스빌딩 12층	가마골솥불촌 대표 윤 중 갑 경남 창원시 가음정 본동 520 ☎282-8100	영농식육점 대표 박 범 기 경남 사천시 정외리 389(시정통내) ☎852-0621
개천우체국 국장 정창민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625 ☎672-0001	죽 립 사 자문스님 ☎834-3254	백 운 암 지정스님 ☎852-3226	관 음 사 명전스님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장촌리 630번지 ☎754-6355
국 관 사 보련스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산12 ☎852-1049	금 강 사 성원스님 경남 거제시 신현동 수월리 216 ☎636-8634	모 총 사 정묵스님 경남 사천시 송포동 산140 ☎055-834-3450	무 주 사 랑천스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25-543 7동(반송빌라) ☎051532-6563
미 륵 암 정연스님 경남 진주시 가좌동 326번지 ☎759-8243	보 광 사 도홍스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69 ☎674-2864	연 공 방 대표 최 은 경 ☎010-8542-5936	창원 삼성카드 총무 허재현님의 봉사회원 일동 ☎010-2535-5680

법인 및 시설 세입 세출 예·결산 보고

1.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단위 : 원)

2015년도 결산서				2016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재산수입		사무비	4,311,790	재산수입		사무비	29,000,000
후원금수입	83,092,914	재산조성비	22,124,680	후원금수입	74,000	재산조성비	65,000,000
		사업비	7,400,000	이월금	157,600,000	사업비	76,000,000
이월금	161,868,830	시설전출금	43,000,000	예금이자수입		시설전출금	50,000,000
예금이자	106,877	잡지출		잡수입	1,300,000	잡지출	2,900,000
		차년도이월금				예비비	10,000,000
계	245,068,621	계	76,836,470	계	232,900,000	계	232,900,000

2. 사회복지시설 보리수동산

(단위 : 원)

2015년도 결산서				2016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보조금수입	1,110,930,120	사무비	960,730,630	보조금수입	1,201,869,660	사무비	1,056,992,410
후원금수입	80,418,789	재산조성비	15,084,600	후원금수입	78,000,000	재산조성비	16,000,000
법인전입금	43,000,000	사업비	283,586,690	법인전입금	50,000,000	사업비	110,800,400
이월금	58,020,342	잡지출	31,236	이월금	35,519,000	교육비	28,511,000
예금이자		반환금		예금이자		프로그램사업	166,994,850
잡수입	14,717,244	차년도이월금		잡수입	13,984,000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74,000
계	1,307,086,495	계	1,259,433,156	계	1,379,372,660	계	1,379,372,660



「사랑의 후원 보내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후원안내」

- ♥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금은 전화나 팩스 또는 편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후원금은 꿈을 키워가는 보리수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1. 무통장입금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후원계좌
 농 협 : 827089-56-006691 예금주 : 강욱환(정토만일회)
 우 체 국 : 612564-01-000652 예금주 : 정토만일회
 경남은행 : 525-07-0087863 예금주 : 정토만일회보리수동산

시설후원계좌
 농 협 : 351-0053-7132-63 예금주 : 보리수동산
 우 체 국 : 612564-01-001104 예금주 : 보리수동산
 (환경개선지정후원금)
 경남은행 : 522-07-0084675 예금주 : 보리수동산강욱환

2. 은행간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위 은행으로 계좌간 이체 신청을 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금융 기관에 직접 신청

3. 지로입금

본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신청서 및 지로를 보내드리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4. CMS 자동이체 신청

보리수동산 055)673-5321번으로 전화하시어 CMS후원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보리수동산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을 기다립니다」

생필품, 의류, 책, 참고서, 신발, TV

「보리수 동산은....」

보리수동산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만 18세이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 시설입니다. 우리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지시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기를 나아가야 할 아동들이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 더 노출되지 않고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초록연꽃

발행처 : 보리수동산

발행인 : 송욱 스님

편집위원 : 박말선 · 허민영

보리수동산을 후원해 주신 업체를 소개합니다

용 하 한 의 원

네명의 전문한의사 원장님이 공동으로 진료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발휘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한의원,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한의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한의원이 되도록 저희 용하한의원 일가족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하한의원의 3단계 특수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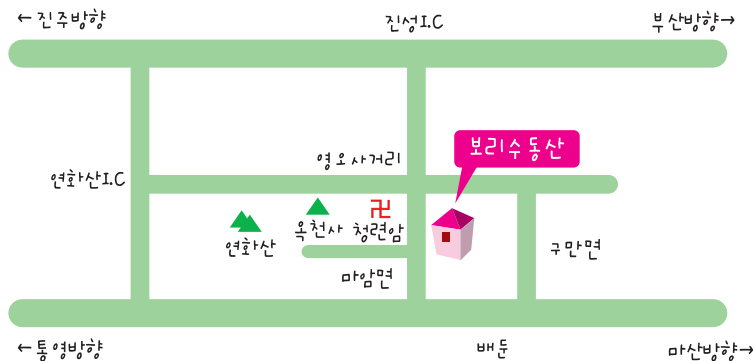
- 1단계 : 혈액정화
- 2단계 : 오장육부 기능조절
- 3단계 : 면역력 강화

용하한의원의 전문클리닉

- | | | |
|-----------|-----------|------------|
| 1.중풍예방클리닉 | 2.여성클리닉 | 3.과민성대장클리닉 |
| 4.회복클리닉 | 5.만성피로클리닉 | 6.척추관절클리닉 |
| 7.한방피부클리닉 | 8.간해독클리닉 | 9.간질클리닉 |
| 10.알러지클리닉 | 11.수험생클리닉 | 12.스트레스클리닉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5-1(상공회의소 계량중학교 뒤편)
TEL : (055) 633-3114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정토만일회

52904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전화 : (055) 673-5321 팩스 : (055) 673-5347
홈페이지 www.borisudongsan.or.kr